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연 구 기 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 구 책 임 자 : 태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참 여 자 : 송미영 수석연구위원

신유리 위촉연구위원

요 약

□ 연구 필요성

-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농업·농촌 유입 및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 청년여성은 영농 기반 마련이 어렵고,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 및 보육·생활여건 부재 등으로 청년남성에 비해 농촌 취창업 및 정착비율이 낮음
-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 여성농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 및 정책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청년 여성농업인의 영농 정착 활성화를 위한 농촌의 생활환경, 농업 작업환경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방안 등 모색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취창업 현황 분석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취창업을 저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장애요인과 주거·보육·복지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육구 조사·분석
- 분석자료를 토대로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

□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의

-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살면서 농업 또는 농업·농촌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으로 정의함
 - 법령 상 농업인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의 일을 하는 청년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이는 본 연구가 청년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육성’ 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 방안에도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의 청년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임

- ‘청년여성농업인’의 연령 범위는 「청년기본법」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을 준용하여 만19~39세로 함

□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약 22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약 32만 명 감소하였음. 20~39세 청년층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명으로 2015년 대비 8만여명 감소하였는데, 여성비율은 2015년 45.7%에서 44.3%로 감소하여 성별 불균형이 심화됨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포함)은 2016년 254만여명에서 247만여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비율은 47.0%에서 45.7%로 감소, 청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35.7%에서 33.1%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귀농·귀촌인구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약간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층 귀농인은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함.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귀농사유는 농업 비전과 발전 가능성(39.1%), 가업 승계(16.7%), 가족·친지 등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15.0%) 등의 순서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¹⁾.
- 주목되는 점은 청년층 여성 귀농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최근 5년간 30대 이하 남성귀농인 수는 감소(-1.7%p)한 반면, 여성귀농인 수는 증가(11.9%p)하였음.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최근 5년간 청년여성 귀농가구주 증가율이 청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별에 따른 조사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²⁾

□ 청년여성농업인 실태 특성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청년여성농업인의 87.1%는 대부분 결혼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농업활동 참여비중은 모든 연령대 여성농업인 중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인으로서 지위 인식이나 농업인으로써 정체성 인식, 정책 요구 수준 등이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인구학적으로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특성과 요구를 설명해주고 있으나, 최근 농업·농촌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청년여성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농업·농촌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와 해석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06.25. '20년 귀농·귀촌 인구 49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2) 귀농귀촌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가 제공되지 않음. 특히 청년여성 귀농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 지원정책의 큰 기조는 ‘육성’으로 분류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정착금 지원, 농지임대 및 매매 지원 연계, 교육·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임
- ‘비농업’ 관련 정책으로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이 있음. 농업 종사가 아니라 농업·농촌 관련 법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 외에 청년여성농업인 삶의 질과 관련한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들로는 돌봄·복지·건강·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정책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 유입·육성 지원을 위한 고유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농정착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함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인구정책, 미래전략 차원에서 농업·농촌 정책과 일자리·경제부서를 연계하여 농업·농촌 관련 일자리(활동가, 인턴, 사업단)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 국내 정책 사례

-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특히 출산통합지원센터,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경북마을돌봄터, 경북미래학교, 의료체계 내실화 등 보육·돌봄·건강과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청년여성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년 일자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업·농촌 정책이 비중있게 들어와있어 완주군과 차이를 보임
- 완주군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 비전 하에 일자리, 주거, 참여, 문화, 교육·복지 분야의 사업들을 농촌지원과, 농업축산과 등 농업·농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등 관계 부서들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청년쉐어하우스는 주거 지원 사업임과 동시에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받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점 공간이 되고 있음

○ 국외 정책 사례

- 독일의 농촌 여성 협회는 ‘젊은 농촌 여성 네트워크’와 ‘농촌여성 창업 지원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년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참여 활성화, 배움과 창업을 연결하는 여성들간의 멘토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가족 간 경영방침, 농업경영 참여자의 역할, 취농 조건, 취업환경(보수, 휴일·휴가, 보험료 등)에 대한 합의를 결정하는 협약임. 연금 가입자격 부여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으며 체결 농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 정착 및 취창업 경험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경험과 정책 욕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19세~39세까지의 청년여성농업인 40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 농업농촌 비전과 탈농업
 - 청년여성농업인이 말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은 진폭이 큰 편임.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장애물이 많은 경로임
 - 청년여성농업인의 탈농업 사유는 농업소득 부족으로 인한 정착농 지원금 상환,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마련, 주거지 미확보, 농촌 마을공동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 등임
- 농업·농촌 관심과 시작 계기
 -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모의 건강 문제나 집안의 경제적 위기,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별도의 탐색기나 준비계획기가 없이 바로 농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음. 상황적 요인도 있지만, 본인이 ‘집안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계산과 감각이 농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데 농업을 통한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선택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부모기반이 없이 무연고로 농촌에 이주하여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은 건강·먹거리·생태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주거지 여건이 선택에 영향을 미침

○ 농업·농촌 정착 경험과 애로사항

- 자립 요인: 주거, 정착금, 네트워크(사회활동)

- 주거지 마련 어려움은 부모기반이 없는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의 답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주거지 불안정성과 안전 위협은 준비계획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등 정착과정 전 단계에서 나타남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진입 선택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과정을 급격하게 축소시켜 정착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무연고 비혼 여성으로 농업은 시작했지만, 영세한 규모로 판로 확보가 어렵고, 농업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가 있음
- 농업·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여성농업인은 정책 정보의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음. 또한 청년여성농업인은 청년여성에 대한 편견, 힘든 농업노동을 하면서 혼자라는 고립감, 농업인으로서 회의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는데, 본인과 비슷한 경로에 있는 선배, 또래 청년여성농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위안을 얻고, 농업인으로서 전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됨

- 자본 요인: 농지, 자금, 기계

-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에서 농지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을,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차한 농지가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 역량과 농작업 여건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함
- 부모기반이 없이 농사를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모아놓은 초기 자금으로 농지는 구했지만, 농지 기반시설 마련, 농자재 구입, 농작업 비용 등 상당한 영농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음
-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 정책 지원(융자)을 받아 농업 규모를 키운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몇 억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농업 수익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은 '탈농업'으로 이어지기도 함
- 농기계 보유와 사용 정도는 부모기반, 영농경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농기계를 이용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농기계 농작업 비용 부담이 컸음. 농기계 사용 부분에서는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음. 여성 1인 단독경영의 경우 농기계 농작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기술 요인: 기술, 노동부담, 시장, 네트워크(경제활동)
 -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영농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이며 교육을 통하여 본인 작목과 관련한 선배 농업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음. 귀농귀촌교육, 브랜딩, 마케팅 등 분야 교육은 정착 단계별·수준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남성(남편) 중심의 교육 참여가 당연시 여겨지면서 기혼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한받으며, 강사의 성평등 의식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농업 규모가 크고, 판매, 마케팅과 관련한 역량이 뛰어난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농업인을 위한 가공, 농산물 판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반해 부모기반이 없고 관련한 역량이 없는 영세한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밭에서 재배한 소량의 농산물 판매 방법이나 경로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영세농, 여성 1인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함
 - 네트워크(경제활동)와 관련해서는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주거지, 농지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영농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활동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본인의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경향을 보임.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주거지 마련, 농지 구입,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자립 과정 자체가 고군분투이며, 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 또한 열악한 상황으로 이어짐
- 사회 요인: 문화, 가족, 돌봄, 건강
 - 농촌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 전문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음. 농촌 내 부모의 지위가 낮거나, 비혼, 무연고, 청년여성농업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신, 비하,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임.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적지 않음. 마을주민, 농업교육 강사, 공무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 문화활동 강화 등 요구도가 높음
 - 가족과 관련한 정착 장애요인은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고충과 관련이 있음. 부모가 본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고 공사구분이나 적절한 보상없이 일을 시키고 생활을 통제하는 부분, 딸(기혼/비혼)을 농업 승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 등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함
 - 기혼 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은 농촌 지역에서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하며, 시설·서비스의 수준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힘
 - 건강과 관련해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들녘 화장실, 산부인과, 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한 의견

- 토지 없이 귀촌하는 청년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조사 참여자들은 청년여성이 부모, 농지, 돈, 결혼 없이 농촌에 홀로 귀농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함. 농업·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업 종사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여성 또한 많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를 제안함
-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과 관련한 의견들
 - 정착농 지원정책은 농업·농촌 유입은 촉진하지만 농업·농촌 준비계획 단계를 축소시키고 농업종사 과정을 힘겹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융자금 상환 기한의 연장, 정착금 사용 방법의 개선,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제한 개선, 영농활동 외 직군 확대 등 정책요구가 있었음. 청년농업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해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책을 확인하고 문의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 기본 방향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과 여건을 고려한 밀착형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
- 농촌 청년여성으로의 정책대상 확대

○ 정책과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제언

1. 정착 지원 인프라 조성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플랫폼 운영
 - 기반 사업: 실태 파악 및 DB 관리
 -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
 -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및 개발
 -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2. 농촌 생활여건 개선(주거·보육·복지)

- 귀농귀촌 청년여성 안심주택 지원
- 농촌지역 아동돌봄시설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 정책 강화

3. 농업·농촌 취창업 역량 강화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자립 및 영농설계 지원 강화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 농산물 판매 기회 마련
- 청년여성농업인 창업자 지원 사업 운영
- 농촌 청년여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책 활성화

4. 세대 간 교류·협력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대
- 청년여성농업인 세대공감 지역사회 활동 추진

5.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정착

- 청년농·귀농귀촌 관련 공무원, 전문가, 멘토 등 성인지 교육 강화
- 청년농업인단체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실천 문화활동 실시
- 농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6. 정책·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 온라인 청년농업인센터 운영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용어의 정의와 선행연구 논의	5
제2장.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및 특성	11
1. 청년여성농업인 인구 현황	13
2. 청년여성농업인 실태 특성	17
3. 시사점	20
제3장.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사례	21
1.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23
2. 국내외 정책 우수사례	31
제4장.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 정착 및 취창업 경험	37
1. 조사 개요	39
2. 조사 참여자 특성	42
3. 조사 결과	46
4. 요약 및 시사점	73
제5장.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85
1. 기본 방향	87
2. 정책 과제	89
참고문헌	104
부록 1. 전국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청년농업인·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105
부록 2.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134

표·그림 목 차

<표 1-1> 농업인·여성농업인 관련 법령에서의 농업인 정의	5
<표 1-2> 청년·청년농업인 관련 법령·정책에서의 연령 범위	6
<표 2-1> 성별 농가인구 변화(2015~2019년)	13
<표 2-2> 농업경영체내 농업인·청년농업인 수 변화(2016. 2020)	14
<표 2-3> 성별 귀농인구 변화(2016~2020)	15
<표 2-4> 성별 연령별 귀농인 수(귀농가구주 수) 변화(2016~2020)	15
<표 2-5> 성별 귀촌인구 변화(2016~2020)	16
<표 2-6> 성별 연령별 귀촌인 수 변화(2016~2020)	16
<표 3-1> 중앙정부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24
<표 3-2> 지방자치단체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28
<표 3-3>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의 주요사업 목록	32
<표 3-4> ‘청년메카완주’ 관련 세부사업 및 담당부서	34
<표 4-1> 청년여성농업인 심층면접조사 실시 일정	40
<표 4-2> 청년여성농업인 유형화 항목	40
<표 4-3> 청년여성농업인 정착단계 항목	41
<표 4-4> 조사참여자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	42
<표 4-5> 조사참여자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영농유형별)	43
<표 4-6> 조사참여자별 영농유형 및 기본 특성	44
<표 4-7> 청년여성농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8
<표 5-1> 분야별 정책 과제 요약	89
<표 5-2> 분야별 주요 특징 및 정책과제 세부 내용	99
[그림 3-1]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조성도	31
[그림 3-2]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	33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농업·농촌 유입 및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 청년여성은 영농기반 마련이 어렵고,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 및 보육·생활여건 부재 등으로 청년남성에 비해 농촌 취창업 및 정착비율이 낮음.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중 여성 비율은 32.8%로 전체 농업인 중 여성비율이 45.7%임을 고려할 때 농촌청년인구는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세대임
-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 여성농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 및 정책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청년 여성농업인의 영농 정착 활성화를 위한 농촌의 생활환경, 농업 작업환경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방안 등 모색이 요구됨

나. 연구 목적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취창업 현황 분석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취창업을 저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장애요인과 주거·보육·복지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육구 조사·분석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국내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및 특성 분석

- 국내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현황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촌 내 취창업을 저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장애요인 분석
- 현재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 취창업을 지원하는 농식품부·지자체 정책 분석 및 평가

2)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 활성화 방안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공동체 내 지위 개선방안
- 주거·보육·복지 등 청년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농촌생활여건의 개선방안
- 농촌 내 청년여성농업인 중심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관련 정책 우수사례 제시

3)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 내 취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

- 청년여성농업인의 취창업 역량강화 추진체계 구축방안
- 청년창업·농지임대 지원 등 기존 영농정착지원정책의 청년여성농업인 연계 방안
- 청년여성에 대한 농촌 취창업 경험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방안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및 정책 제시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검토
 - 청년농업인 관련 선행 정책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검토
 - 정부 및 지자체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국내외 관련 우수 정책사례 및 프로그램 조사·제시
- 관련 통계 재분석:
 - '18 여성농업인실태조사, '20 귀농귀촌실태조사 분석
- 질적 조사 실시
 - 지역별·정착유형별로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
- 자문회의
 - 연구 방향성 및 심층면접조사 설계 및 문항 구성, 조사결과 분석,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정책과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무협의 실시

3. 용어의 정의와 선행연구 논의

가.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살면서 농업 또는 농업·농촌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청년여성’으로 정의함
- 법령 상 농업인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의 일을 하는 청년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이는 본 연구가 청년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육성’ 뿐만 아니라 ‘농촌 정착’ 방안에도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의 청년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임

<표 1-1> 농업인·여성농업인 관련 법령에서의 농업인 정의

법 령	내 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여성농업인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자료: 법령정보시스템

- 청년여성농업인의 연령 범위는 만 19~39세까지로 정하고자 함
- 청년의 연령 범위는 법령과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함.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 15~29세까지를 정책의 대상으로 함

- 반면에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후계청년농업인법」은 후계농업인인 만 50세 미만으로, 청년농업인인 만 40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 상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선이 타 법령보다 높은 이유는 청년인구가 적은 농업·농촌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됨³⁾. 같은 이유로 전국 각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서는 하한 연령을 만18세 또는 만19세로, 상한연령은 만39세에서 만40세, 만45세, 만49세로 폭넓게 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청년기본법」과 「후계청년농업인법」을 준용하여 만19~39세로 정하고자 함

<표 1-2> 청년·청년농업인 관련 법령·정책에서의 연령 범위

법령	정책대상 정의	소관부처	제개정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무조정실	2020.2.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고용노동부	2018.12.31.
후계청년농업인법 시행령	40세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21.5.20.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8세 이상 ~ 40세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2020.12.
농업경영체 등록연감	40세 미만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하한 연령: 18세, 19세 상한 연령: 40세, 45세, 39세, 49세	지자체	

자료: 법령정보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 선행연구 논의

1) 청년농업인 관련 연구

- 농업·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농업·농촌인구 유입 필요성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관련한 정책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마상진·정기환(2008)은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연구에서 창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본, 기술, 시장, 사회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사회 네트워크가 다른

3) 인구총조사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구(만19세 이상 34세 이하)는 19.2%, 농가인구 중 해당 연령대 인구는 약 6.8% 수준임(자료: 인구총조사, 2019; 농림어업조사, 2019)

요인들에 선행하여 작용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함.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주택, 토지, 기술습득 등의 수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음

- 마상진·정은미·김경인(2017)의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와 창농 장애요인을 조사함
 - 농촌 청년농가의 삶의 질 만족도는 성별, 세대원 수, 멘토 유무, 거주지 특성, 지역기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보다 남성이,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멘토가 있을수록, 품목 주산지일수록,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받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음
 - 해당 연구는 창농 장애요인을 ① 자본적 요인(영농기반·시설, 운영자금 등), ② 기술적 요인(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등), ③ 사회적 요인(인적 네트워크, 주거마련 등)으로 구분(마상진·정기환, 2008)할 때,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본적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함
 - 청년농업인은 창농 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68.0%), 농지(46.7%), 기본생활비 확보(37.7%), 영농기술(32.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승계 창업농은 가족의 이해(28.5%)에 대한 어려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창업 이후 농업경영 및 생활 상의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설비투자 52.6%, 운영자금 50.4%), 소득부족(33.2%) 등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55.8%), 생활여건 불편(34.2%), 휴가(여유시간) 부족(31.0%) 등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됨. 기술적 측면이나 지역사회 적응, 가족 내 문제 등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 해당 연구결과는 조사 참여자의 93.3%가 남성으로 청년남성농업인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남성 470명, 여성 34명). 따라서 청년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농촌 삶의 만족도, 창농 장애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김기홍(2016), 김정섭·신소희·구본경(2018)은 청년농업인,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은 인력 차원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을 강조함. 청년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편견과 텃세 등 정서적 문제와 토지, 주거, 일자리 등 물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농업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공동체, 생활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관계망 진입을 돕는 안내자와 통합적인 지원조직 필요성을 제시함
- 이진천(2020)은 지방자치단체 농정에서 청년농업인 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해당 연구는 기존의 청년농업인 정책이 청년 전문인력 양성의 관점으로 '청년

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농촌청년’으로 정책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농촌청년은 농촌의 주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농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기획에는 청년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영농창업 외에 농촌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농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농촌청년의 유형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를 가진 청년뿐만 아니라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는 도시출신 청년 등을 포함함. 이와 더불어 해당 연구는 또한 소수의 청년농업인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관리·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도 단위 청년농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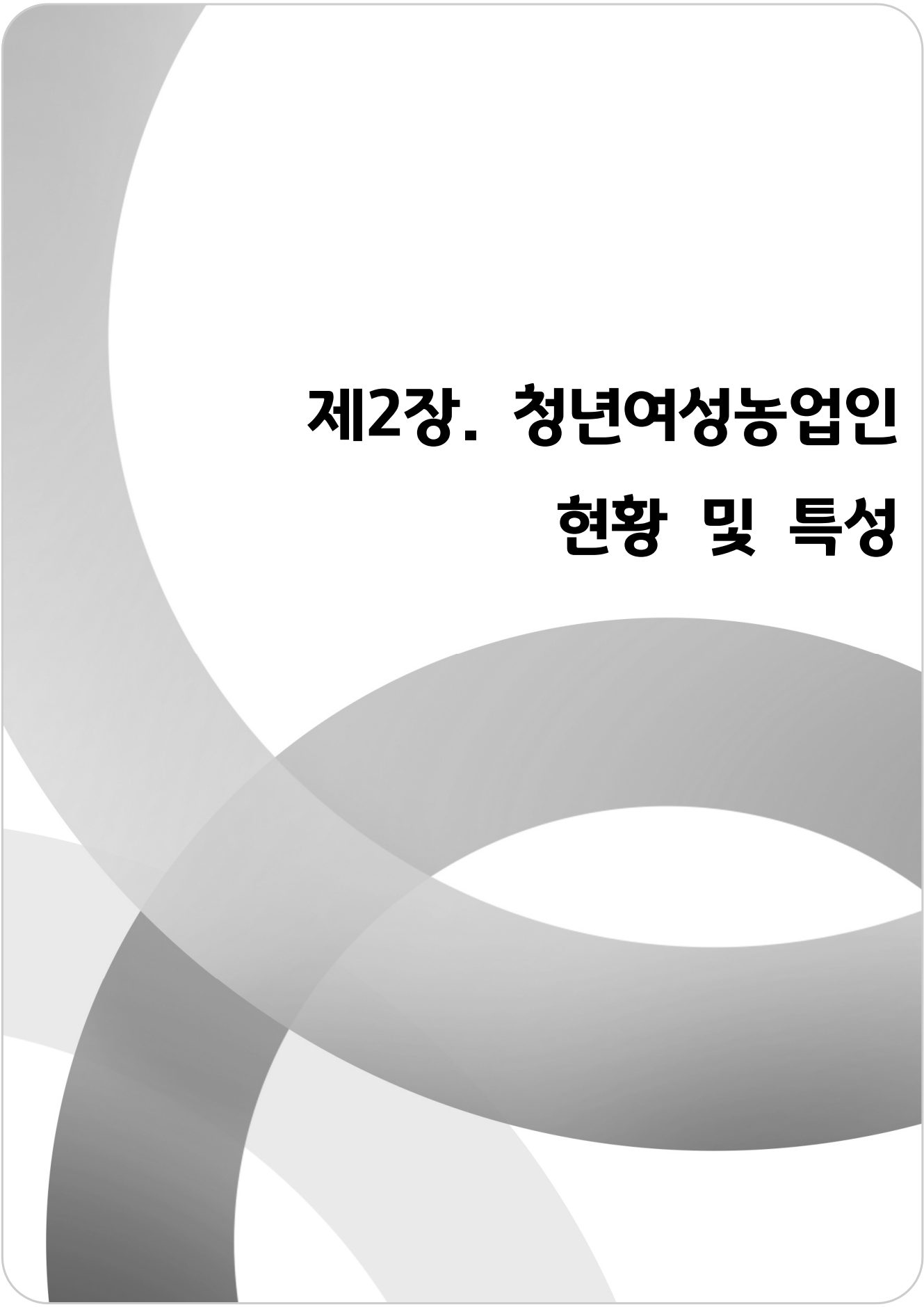
- 청년농업인 정책 관련 연구들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촌 정착에 있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청년 또한 주요한 인적 자원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다만,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청년남성농업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거나, 조사의 설계·분석에서 성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영역에서 경험하는 상대적인 어려움들을 드러내고 청년농업인정책의 성인지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

-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들은 최근 세대별 특성으로 청년여성농업인의 상황과 정책요구에 주목하고 있음. 다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안석·엄진영·박지연, 2019)와 같이 전체 여성농업인 대상 실태조사에서 연령별 특성으로 도출한 청년여성농업인의 상황과 정책 요구는 주로 자녀양육, 교육여건, 문화생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제주 지역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조사 연구를 실시한 신승배·손태주(2020)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은 성평등 의식은 높은 반면,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은 낮은 특성을 나타냄. 이는 실제 여성농업인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기혼으로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농업·농촌에 진입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녀양육기가 겹쳐지면서 남편에 비해 농업 참여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해석이기도 함(안석·엄진영·박지연, 2019).
- 청년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농촌청년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중 세대별 특징으로 청년여성농업인을 다루고 있음. 해당 연구들은 농업·농촌분야에서 청년여성의 일과 삶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촌사회의 가부장제적인 문화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가부장제적인 문화에는 낮은 성평등 의식뿐만 아니라, 씨족 중심 농촌사회 특유의 젠더 규범, 젊은 여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시선, 여성을 농업·농촌의 일꾼

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인식 등이 포함됨(태희원, 2018; 안희정·허목화·조연숙 외, 2019; 신승배·손태주, 2020; 이순미·위라겸·정인경, 2020; 박민정, 2020). 해당 연구들에 나타난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책 요구는 농업·농촌에서의 청년여성/청년여성 농업인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청년여성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고립감 해소, 청년여성농업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등으로 제시됨

- 가부장제적인 문화는 인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부모, 농업인 선후배·남성 동료,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청년여성을 농촌에 정주할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청년여성은 농업·농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에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임(마상진 외, 2017). 이와 같이 농업·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이 스스로를 임파워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 기술 등 주요 정착요인에 접근성을 가지기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함
- 이순미·위라겸·정인경(2020)는 ‘농수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여성’(만45세까지)을 ‘미래 여성농어업인’으로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함. 청년여성농어업인이 진입 초기에 승계농의 경우 부모의 불인정, 실패 낙인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남성 중심 멘토, 주거 확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본격적 생산과 경영 시기에는 가족경영체 내 인정, 보상 부족,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지만, 모임 공간의 미확보,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경험,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함. 해당 연구는 연령과 성별 위계에 따른 차별, 공동시설·정책정보 접근성에서의 배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 등을 정착 장애물로 지적함
- 본 연구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라 연령대를 만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농업·농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착 애로사항과 정책욕구를 조사하고자 함.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유형과 정착단계, 부모기반 유무에 따라 농업, 농촌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극복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제2장.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및 특성

제2장. 청년여성농업인 현황 및 특성

1. 청년여성농업인 인구 현황

가.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체

1)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약 22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약 32만명 감소하였음. 농가인구의 여성비율은 2015년 50.8%에서 2019년 51.0%로 약간 상승함. 즉, 농가인구 감소 추세 속에 여성 비율은 다소 증가함
- 20~39세 청년층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명으로 2015년 대비 8만여명 감소하였는데, 여성비율은 2015년 45.7%에서 44.3%로 감소하였음. 청년 농가인구 감소 추세 속에 여성 인구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 청년층 농가인구의 성별 불균형이 심화됨(청년남성 -26.6%p 감소, 청년여성 -30.5%p 감소)

<표 2-1> 성별 농가인구 변화(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20~39세			
	계	남자	여자	여성비율	소계	남자	여자	여성비율
2015	2,569,387	1,264,652	1,304,735	50.8	282,786	153,631	129,155	45.7
2016	2,496,406	1,221,825	1,274,581	51.1	261,782	143,294	118,487	45.3
2017	2,422,256	1,184,279	1,237,977	51.1	248,609	136,985	111,624	44.9
2018	2,314,982	1,130,435	1,184,548	51.2	220,321	122,082	98,239	44.6
2019	2,244,783	1,099,942	1,144,841	51.0	202,408	112,682	89,728	44.3
증감(명)	-324,604	-164,710	-159,894	-	-80,378	-40,949	-39,427	-
증감비율	-12.6	-13.0	-12.2	-	-28.4	-26.6	-30.5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각년도)

2) 성별 연령별 농업경영체 농업인 현황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성별 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음. 2016년 농업인 인구는 254만여명에서 247만여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비율은 47.0%에서 45.7%로 감소하였음. 청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35.7%에서 33.1%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 감소: 47.0% -> 45.7%
- 청년농업인 중 청년여성농업인 비율 감소: 35.7% -> 33.1%

<표 2-2> 농업경영체내 농업인·청년농업인 수 변화(2016. 2020)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0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농업인	계	2,545,525	100.0	2,478,814	100.0
	여성	1,195,309	47.0	1,132,838	45.7
	남성	1,350,216	53.0	1,345,976	54.3
청년 농업인	계	84,290	100.0	66,959	100.0
	여성	30,077	35.7	22,172	33.1
	남성	54,213	64.3	44,787	66.9

주 1. 농업인=경영주+경영주의 농업인

2. 청년농업인=경영주+경영주의 농업인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연감」 (2015.2019)

○ 농업경영체는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나 독립경영으로 분화 여부에 따라 그 구성과 숫자가 변화할 수 있음. <표 2-2>는 농업경영체 내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모두를 집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할 때 청년여성농업인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나. 귀농·귀촌 인구

1) 성별 연령별 귀농·귀촌인구 현황

- 귀농·귀촌인구는 201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귀농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귀농인 규모는 2016년 13,019명, 2020년 12,570

명으로 -3.4%p 감소하였음. 5년 전과 비교할 때 남성 귀농인은 -263명 감소(-3.0%), 여성 귀농인은 -186명 감소(-4.4%p)한 규모임

- 30대 이하 귀농인 수는 최근 5년간 1.6%p 증가하였고 전체 귀농인의 10% 수준을 차지함. 최근 5년간 30대 이하 남성귀농인 수는 감소(-1.7%p)한 반면, 여성귀농인 수는 증가(11.9%p)하였고 해당 연령대 여성 비율 또한 증가함.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여성 귀농인 비율은 2015년 24.4%에서 2016년 26.9%로 증가하였음

<표 2-3> 성별 귀농인구 변화(2016~2020)

(단위: 명, %)

구분	귀농인 수 (귀농가구주 수)			동반가구원 수			귀농가구원 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6	13,019	8,759	4,260	7,540	3,024	4,516	20,559	11,783	8,776
2017	12,763	8,509	4,254	6,867	2,650	4,217	19,630	11,159	8,471
2018	12,055	8,265	3,790	5,801	2,198	3,603	17,856	10,463	7,393
2019	11,504	7,891	3,613	4,677	1,796	2,881	16,181	9,687	6,494
2020	12,570	8,496	4,074	4,877	1,959	2,918	17,447	10,455	6,992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각년도)

<표 2-4> 성별 연령별 귀농인 수(귀농가구주 수) 변화(2016~2020)

(단위: 명, %)

시점	계				30대 이하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2016	12,875	8,730	4,145	32.2	1,340	1,013	327	24.4
2017	12,630	8,477	4,153	32.9	1,325	992	333	25.1
2018	11,961	8,241	3,720	31.1	1,356	1,020	336	24.8
2019	11,422	7,869	3,553	31.1	1,209	941	268	22.2
2020	12,489	8,474	4,015	32.1	1,362	996	366	26.9
증감(5년)	-386	-256	-130	-	22	-17	39	-
증감율	-3.0%	-2.9%	-3.1%	-	1.6%	-1.7%	11.9%	-

자료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각년도)

- 귀촌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연간 귀촌인 규모는 2016년 475,489명, 2020년 477,122명으로 0.3% 증가하였음. 5년 전과 비교할 때 남성 귀촌인은 5,060명 증가(2.0%p 증가), 여성 귀촌인은 -3,427명 감소(-1.5%p 감소)함
- 최근 5년간 30대 이하 귀촌인 수는 0.6%p 증가하였는데 남성은 3.7%p 증가, 여성은 -3.0%p 감소함.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여성 귀촌인 비율은 2015년 47.7%에서 2020년 46.0%로 감소하였음

<표 2-5> 성별 귀촌인구 변화(2016~2020)

(단위: 명, %)

구분	귀촌인 수			귀촌가구주 수			동반가구원 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6	475,489	248,414	227,075	322,508	199,944	122,564	152,981	48,470	104,511
2017	497,187	260,783	236,404	334,129	208,386	125,743	163,058	52,397	110,661
2018	472,474	248,695	223,779	328,343	201,703	126,640	144,131	46,992	97,139
2019	444,464	236,646	207,818	317,660	194,790	122,870	126,804	41,856	84,948
2020	477,122	253,474	223,648	345,205	210,373	134,832	131,917	43,101	88,816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각년도)

<표 2-6> 성별 연령별 귀촌인 수 변화(2016~2020)

(단위: 명, %)

시점	계				30대 이하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2016	475,489	248,414	227,075	47.7	124,888	65,274	59,614	47.7
2017	497,187	260,783	236,404	47.5	132,392	70,117	62,275	47.0
2018	472,474	248,695	223,779	47.3	125,272	66,669	58,603	46.7
2019	444,464	236,646	207,818	46.7	119,542	64,489	55,053	46.0
2020	477,122	253,474	223,648	46.8	125,672	67,718	57,846	46.0
증감(5년)	1,633	5,060	-3,427	-	784	2,444	-1,768	-
증감율	0.3%	2.0%	-1.5%	-	0.6%	3.7%	-3.0%	-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각년도)

- 최근 5년간 귀농·귀촌인구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약간 증가하였음. 2020년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인은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임.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의 귀농 사유는 ‘농업 비전과 발전 가능성’(39.1%), ‘가업 승계’(16.7%), ‘가족·친지 등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15.0%)의 순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21)⁴⁾
- 주목되는 점은 최근 5년간 청년층 여성 귀농인구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 같은 기간 청년 남성은 -1.7%p 감소, 여성은 11.9%p 감소하였음.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최근 5년간 청년여성 귀농가구주 증가율이 청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별에 따른 조사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⁵⁾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6.25.), “'20년 귀농·귀촌 인구 49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2. 청년여성농업인 실태 특성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⁶⁾에 나타난 30대 이하 청년여성농업인의 실태 특성을 정리함. 해당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며, 2018년 조사는 전국 여성농업인 총 2,049명에 대해 실시하였음. 조사분석시 연령 비중은 70대 이상 35.9%, 60대 30.4%, 50대 22.4%, 40대 7.1%, 30대 이하 4.2%순임(안석 외, 2018)

가. 인적 특성

- 혼인상태 및 자녀 수를 살펴보면, 청년여성농업인(만 39세 이하)의 95.2%가 배우자가 있으며 평균 자녀 수는 1.53명임
- 자산 보유 현황은 ‘농지’ 15.6%, ‘집/건물’ 14.2%, ‘기계·시설’ 0.0%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비율임. ‘자동차’ 보유 비율은 28.2%로 가장 높음. ‘자산없음’ 비율이 4.1%로 가장 높은 연령대임
-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청년여성농업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 빨래, 식사, 자녀돌보기, 부모돌보기 모든 항목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가사노동시간에 투입하고 있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 참여시간이 높은 것도 특징적임. 자녀 돌보기가 2.72시간으로 가장 많고, 남편 참여시간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0.97시간임. 남녀 간 가사노동시간 격차는 청년 연령대가 가장 큼
- 컴퓨터 활용 정도 및 이용목적의 경우, 청년층은 이용 정도가 가장 높지만, ‘농업 관련 동향 파악’, ‘판매 정보와 교류’ 등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낮음. ‘생활정보’ 52.4%, ‘취미·문화·여가’ 43.9%, ‘농업정보·동향파악’ 32.2% 순임

나. 농가 특성

- 농지를 1ha 미만 경작하는 비율은 60.7%로 70대 이상, 60대 다음으로 높고, 2ha 이상 경작하는 비율은 13.7%로 50대 다음으로 높음.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비율은 69.8%로 70대 이상, 60대 다음으로 높고, 2ha 이상 소유하는 비율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10.9%임. 소규모·영세규모를 경작하고 소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5) 귀농귀촌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가 제공되지 않음. 특히 청년여성 귀농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6)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는 전국 여성농업인 총 2,04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 참여자는 연령별로 70대 이상 26.8%, 60대 25.2%, 50대 22.4%, 30대 이하 15.6%, 40대 10.0% 순이며, 연령대에 비례하여 연령분포를 보정함. 통합통계 연령별 분포는 70대 이상 35.9%, 60대 30.4%, 50대 22.4%, 40대 7.1%, 30대 이하 4.2%순임(안석 외, 2018)

- 본인 명의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8%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평균 소유 면적은 0.08ha이며 1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비율은 2.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음
- 주력품목은 논벼 38.5%, 과수 23.4%, 노지채소 17.9%, 시설채소 11.1%, 일반 밭작물 5.1%, 화훼·특작 2.8%, 축산 1.2% 순으로 나타남.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수, 시설채소 등 비중이 높음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00만원 미만 농가 비중은 43.0%로 낮고 5,000만원 이상 농가 비중이 높음(13.9%)

다. 경제 · 사회 활동

- 농업 종사 계기는 청년여성농업인의 87.1%가 농업인과 결혼을 통하여 시댁 또는 남편의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40대 85.3%, 50대 86.6%보다 높음. 여성 본가의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9.2%로 40대(9.4%)다음으로 높음
- 영농경력은 평균 7년으로 결혼 경력과 비슷함
- 직업적 지위는 경영주가 2.2%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공동경영주는 9.2%로 70대 이상 7.4% 다음으로 낮음.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88.6%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무급 가족종사자 70.6%, 유급 가족종사자 3.3%임
-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은 ‘수확작업’, ‘수확 후 관리’, ‘출하 준비’ 순이며,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은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 ‘판로 결정’,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순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은 편이며, ‘농지 및 기계 구입’에 대한 참여도는 높음
-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 5.98시간, 농한기 1.21시간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적게 나타남. 농사 일을 50% 이상 담당하는 비율도 18.9%로 가장 낮음
- 농외 소득활동 참여는 30.6%로 가장 높고 참여기간은 6개월 이상이 가장 많음. 주요 활동내용은 농업 외 일용직 46.0%, 농업 일용직이 34.7%를 차지함. 월평균 농외소득 규모는 100~149만원 31.6%, 30~49만원 17.6%, 70~99만원 15.5%, 150만원 이상 15.3%, 20~29만원 9.2% 순으로 나타남. 내용은 ‘농산물 판매’가 17.5%로 가장 많고 ‘시간제 근무’ 13.8%, ‘농업 임금노동’ 11.1% 순임.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는 ‘추가소득 마련’ 37.4%, ‘생활비 부족’ 23.1%, ‘재능 활용’ 7.5%, ‘사회생활 목적’ 7.1% 순이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활비 부족’, ‘재능 활용’,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음. 농외 소득활동 참여 애로사항은 ‘기회 · 정보/능력의 부족’ 31.1%, ‘능력 부족’ 17.4%, ‘자본 부족’ 12.7% 순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적 한계’는 2.0%로 낮고, ‘인맥부족’은 8.7%로 다소 높음

-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높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가 61.1%,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가 20.1%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향후 여성농업인 지위가 ‘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75.9%임
- 단체 가입률은 75.0%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며, ‘농수축협 조합원’,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작업 관련 단체 참여비율이 특히 낮음
- 교육경험 비율은 56.1%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 교육 내용은 ‘취미·여가·교양’, ‘컴퓨터 교육’,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순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교육은 ‘취미·여가·교양’, ‘부업·자격증 취득’, ‘유통·판매·마케팅’ 순임.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사·가사 대체 인력 지원’, ‘가까운 교육장소’, ‘저녁시간에 실시’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어려움은 ‘의료기관이 멀다’ 21.0%, ‘의료서비스 부실’ 13.6%, ‘병원 갈 시간 부족’ 13.2%로 나타남.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서비스 부실’ 답변이 높음
- 문화행사 이용경험은 57.1%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애로사항은 ‘경제적 상황’ 사유가 가장 많음
- 여성 관련 시설 중 수요가 높은 시설은 ‘여성인력 개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순임. 모든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요구도가 높음
- 농촌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가까운 거리’, ‘좋은 보육시설’, ‘저렴한 비용’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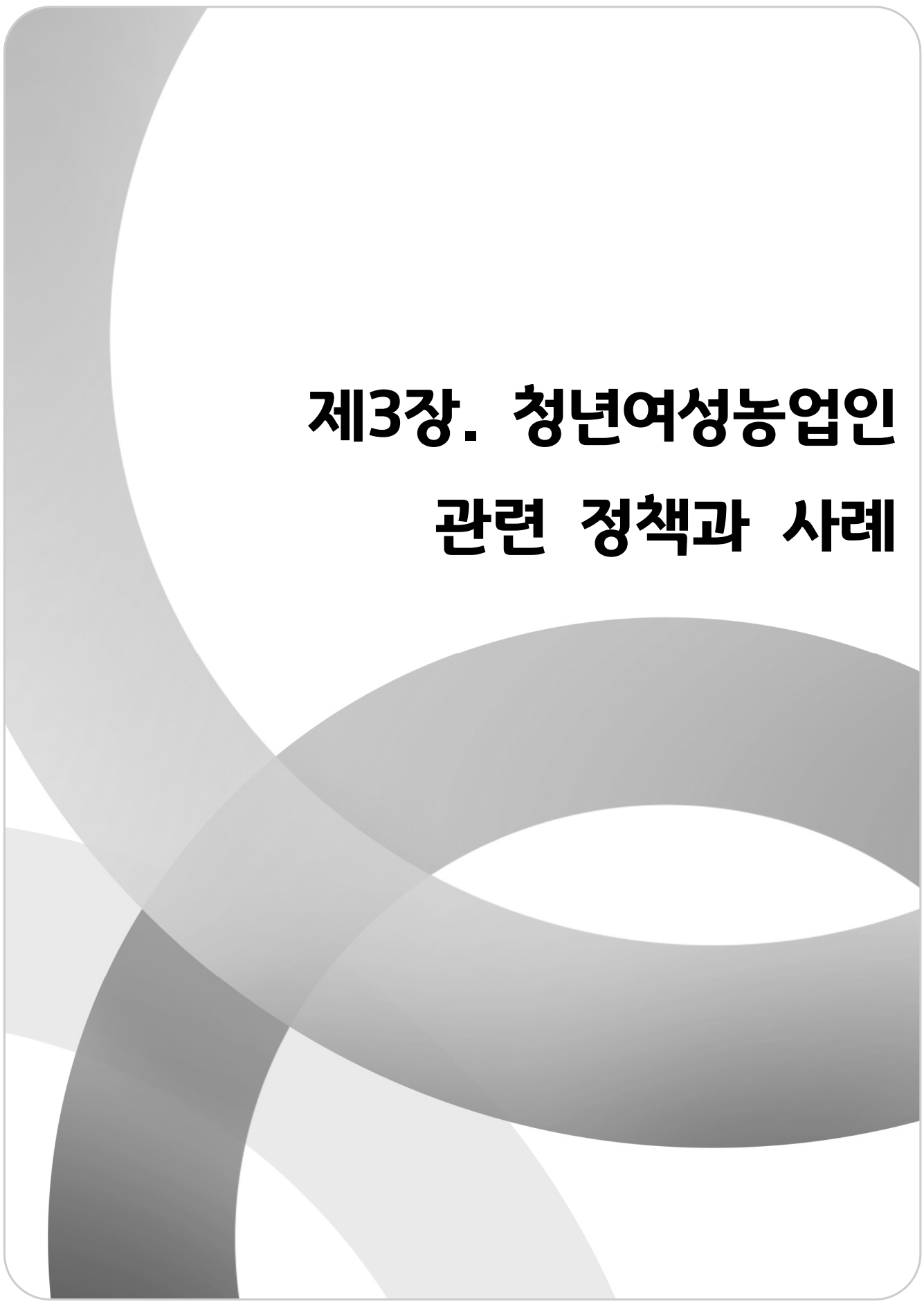
라. 정책 수요와 과제

- 농업 지속 의향에 대해 ‘생산 확대’ 의향은 18.8%, ‘새로운 농업 관련 사업’ 의향은 10.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농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농업을 계속해야 하는 환경’이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고, ‘먹거리 생산 의미 있음’(17.9%), ‘다른 대안이 없음’(17.9%)이 그 다음을 차지함
- 농촌 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는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고,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음’(24.7%), ‘생활비가 적게 든다’(14.9%) 순으로 나타남
-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비율은 3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31.7%,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가 22.6%,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18.2%로 나타남. ‘농사 일이 힘들어서’는 13.5%로 적음
- 농업활동 어려움은 ‘소득이 적다’ 29.1%로 가장 많고, ‘노동이 힘들다’ 23.8%, ‘농사/가사 병행이 힘들다’ 13.5% 순으로 나타남

- 여성으로서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 30.4%, ‘농사/가사 병행 어려움’ 24.9%, ‘농기계/시설 사용 어려움’ 15.6% 순으로 나타남.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은 10.4%를 차지함
-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과제는 ‘보육·교육시설 확충’(32.1%),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19.2%), ‘복지시설·제도확대’(18.0%) 순으로 나타남. 다른 연령대에서 비해 ‘보육·교육시설 확충’이 높고,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 ‘복지시설·제도 확대’,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은 다소 낮음
-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스스로 능력 향상’(26.3%)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함.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의 이해’(17.6%)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회나 정보 제공’(8.0%), ‘여성 네트워크 구축’(9.3%)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정책 인지도는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사업’ 외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센터’, ‘행복바우처’ 등 대부분의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제도’ 인지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정책 만족도의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방’에 대한 만족도(3.89점)가 50대나 70대 이상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영농후계자 여성 우대제도’ 또한 높은 연령대는 만족도가 높으나 젊은 연령대는 낮음

3. 시사점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참여한 청년여성농업인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농업활동 참여비중은 모든 연령대 여성농업인 중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인으로서 지위 인식이나 농업인으로써 정체성 인식, 정책 요구 수준 등이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인구학적으로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특성과 요구를 설명해 주고 있으나, 최근 농업·농촌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청년여성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청년여성농업인이 전망하는 농업·농촌의 미래와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책 요구 등에 대한 조사와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3장.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사례

제3장.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사례

1.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은 ‘농업’, ‘비농업’ 분야 정책으로 구분함.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 분야로 ‘육성’, ‘유입지원’, ‘정착지원’, ‘성장지원’의 단계를 따름
- 농촌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 지원정책의 큰 기조는 ‘육성’으로 분류된 청년창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정착금 지원, 농지임대 및 매매 지원 연계, 교육·컨설팅 등 내용으로 추진됨
 - 유입지원 정책은 농업·농촌의 비전과 가능성을 농업·비농업 분야 청년·청소년에게 교육·홍보·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내용이며,
 - 정착지원정책은 정착금 지원, 농지 임대·매매 지원 연계, 교육·컨설팅 제공, 주거 지원 등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 성장지원 정책은 스마트팜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의 고도화, 첨단화를 학습하고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 ‘비농업’ 관련 정책으로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이 있음. 농업 종사가 아니라 농업·농촌 관련 법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 외에 청년여성농업인 삶의 질과 관련한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들로는 돌봄·복지·건강·세대공감·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정책이 있음
- 각각의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자본, 기술, 사회)의 해소와 관련을 가지며 아래 표의 내용으로 정리함(<표 3-1>). 전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 플랜에 따라 유입지원, 정착지원, 성장지원 경로를 만들고 주로 농업 관련 영농기반 조성 지원(농지, 시설, 경영자금), 농업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관련 정책이 많음. 사회적 장애요인과 관련한 부분은 정착금, 주거, 인건비 관련 사업들이 있으며, 주거,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단기 사업임. 최근 시작된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지자체 공모로 추진하며 농업 종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농촌 이주 인구 대상임

<표 3-1> 중앙정부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현황

구분·사업명·사업개요	탐색 기	농업·농촌 정착 장애요인																				
		자본					기술·농업·경영					사회										
		농지	시설	기계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	주거	정착금	인건비	네트 워크	복지 문화										
구입 지원	○	농업계 학생들의 농업 진출 확대																				
		비농업 분야 청년의 농업 관심 제고 -농대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입 지원	○	청년 귀농 장기 교육과정 귀농 닥터 청년귀농 희망자에게 1:1 컨설팅						○				○										
		예비 창농자 사전교육 강화 - 영농(창농)계획 수립 교육 등 -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 기술·경영분야 심층컨설팅								○												
농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 - 청년 창업형 후계농경영인 선발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																				
		- 정착지원금, 이력관리,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 모니터링단 운영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 포함 · 빈집 수리 단기 임대(1년)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 운영																				
정착 지원	○	청년 창업 기반(농지·자금 등) 지원 - 2030 농지은행 농지임대 최우선 지원 -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 개선으로 자금·담보 애로 완화(보증제도, 비율)																				

구분·사업명·사업개요	탐색 기	농업·농촌 정착 장애요인															
		자본					기술·농업·경영					사회					
		농지	시설	기계	자금	자급	교육 컨설팅	멘토	주거	정착금	인건비	네트 워크	복지 · 문화				
여성 정착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여성 우선 선발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사업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농기도우미 지원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사업 (리더십, 기본공통, 농업기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young>,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2021.1.)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 유입·육성 지원을 위한 고유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농정착금 지원기간 종료 이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인구정책, 미래전략 차원에서 농업·농촌 정책과 일자리·경제부서를 연계하여 농업·농촌 관련 일자리(활동가, 인턴, 사업단)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음.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 돌봄, 건강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정책이 비중있게 결합되고 있음. 완주군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 또한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주거 등 정착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그 외에 전남 나주의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사업’, ‘성평등한 농촌마을 만들기’,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적합 자격증 취득 지원’, ‘여성농업인 특화 농기계 교육 운영’, ‘여성농업인 농작업지원서비스 확대’(단독경영 여성농업인 포함) 등은 청년여성농업인 삶의 질과 관련한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을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임
 - 각각의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해소와 관련을 가지며 아래 표의 내용으로 정리함(〈표 3-2〉).
- (* 그 외 전국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부록 1.을 참조)

구분·사업명·사업개요	탐색 기	농업 정책 정착 장애요인											
		자본				기술(농업·경영)				사회			
		농지	시설	기계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	판로	주거	정착금	인건비	네트워킹	복지문화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생생동아리, 연구동아리 등)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청년농업인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교육 스타청년 농업인 CEO 양성과정 영농 정착 현장 활용 가능 교육(생활 실용 기술 교육)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2040 귀농인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차지원 청년농어업인 영농 배우처 지원사업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이웃사촌 시범마을(3무, 무자본, 무연고, 무기술) -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플러스사업 - 청년이 살고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 -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피견제(청년창업지역정착 지원)	지자체				○							○	
	전라북도				○					○			
	지자체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진안군								○				
	충청남도									○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							○	
경상북도												○	

2. 국내외 정책 우수사례

가. 국내

1)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 의성군은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하여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음. 의성군 안계면의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특히 출산통합지원센터,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경북마을돌봄터, 경북미래학교, 의료체계 내실화 등 보육·돌봄·건강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청년여성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 일자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업·농촌 정책이 비중있게 들어와있어 완주군과 차이를 보임



[그림 3-1]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조성도

<표 3-3>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의 주요사업 목록

구분	대상	내용	문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웃사촌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운영	청년대상 홍보 및 유치, 청년활동 관리, 컨설팅, 도·농 교류협력사,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시범마을에서 창업할 청년, 주민 공동 창업팀	사업화자금 및 리모델링(팀당 1억원)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안계청년공동작업장 조성		공동작업장 및 개인공방 제공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안계청년 허브센터 조성		청년 취·창업, 문화, 네트워킹 등 복합공간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식품특화농공단지		농·축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 특화농공단지 조성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반려동물 복합시설(펫카페, 교육·체험장, 실내외 도그린, 도그풀장, 캠핑장 등)	의성군청 경제투자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만18세이상~만 39세 미만 창업농 희망청년	월급형 창업교육과 창업지원(3년 계약, 200만원 월급제)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연계사업	청년과짜방, 청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빈집포 리모델링 지원		청년주거, 창업·작업공간 제공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054-862-2947)
	신규주거단지 단계별 조성		주거단지 300세대 조성(1단계 50세대, 2·3단계 100세대 +a)	의성군청 시범마을조성과
	안계면 소재지 도시재생		문화 복지시설 신축, 주거정비 등	의성군청 지역재생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영유아 장난감 대여, 놀이방, 체험교육, 엄마쉼터 등	의성군 보건소
	명품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군립안계어린이집 이전·확정신축(2층, 776㎡, 정원 99명)	의성군청 복지과)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		방과후 아동돌봄(교육, 보호, 놀이 등)	의성군청 총무과
	경북미래학교 원영		안계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각종 특성화 교육 시설	의성군청 총무과
	의료체계 내실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의성군 보건소

출처: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nsc.or.kr/townbiz>

2) 완주군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

- 완주군의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 비전 하에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동 참여를 통한 주체적인 청년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 인프라와 연계된 대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교류와 도전의 기회를 통한 창의적인 청년문화 조성’ 등 정책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참여, 문화, 교육·복지 분야의 사업들을 농촌지원과, 농업축산과 등 농업·농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등 관계 부서들이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청년쉐어하우스는 주거 지원 사업임과 동시에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 받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점 공간이 되고 있음



[그림 3-2] 청년완주 Jump-Up 프로젝트

<표 3-4> '청년메카완주' 관련 세부사업 및 담당부서

구분	세부구분		사업내용	담당부서	
일자리	취업	청년취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랑 ·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도제 · 지역산단 청년 활력UP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 완주로컬푸드 2.0 · 청년도시재생전문가키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도시개발과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사회적경제과	
			귀농귀촌인턴십	농업축산과	
			취업지원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회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사회복지과
				청년취업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구직청년정장대여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창업	일반창업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사회적경제과	
		농업창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촌지원과	
		식품창업	청년외식키움 인큐베이팅	먹거리정책과	
	주거		청년, 완주살이	사회적경제과	
			청년쉐어하우스	사회적경제과	
			청년행복주택	건축과	
		전북청년수당	사회적경제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	농업축산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농업축산과		
		귀농인의 집	농업축산과		
참여		청년정책이장단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위원회	사회적경제과		
		청년참여예산	사회적경제과		
		청년동아리 지원	사회적경제과		
		농업인생생동아리	농촌지원과		
문화		청년거점공간 - 삼례	사회적경제과		
		청년거점공간 - 고산	사회적경제과		
		청년거점공간 - 이서	사회적경제과		
		청년축제	사회적경제과		
교육·복지		청년마을학교	사회적경제과		
		청년배움지원사업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아카데미	사회적경제과		
		청년건강검진	보건소 건강증진과		
		결혼축하금 지원	교육아동복지과		

출처: 청년메카완주 홈페이지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나. 국외

1) 독일 ‘젊은 농촌 여성 네트워크’와 ‘농촌여성 창업 지원 워크숍’⁷⁾

○ 젊은 농촌 여성 네트워크 ‘Junge LandFrauen(Young Rural Woman)’ 구축

- 독일농촌여성협회(Deutsche LandFrauenverband)는 젊은 농촌 여성에 집중하여 이들의 희망과 필요를 정치적인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확산하고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함
- 1단계: 2017년 프로젝트 초안을 작성하고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진행
- 2단계: 2017년~2019년까지 2년여 동안 전국단위, 지역 단위에서 농촌 청년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 2019년에는 3년 동안의 사업 성과(농촌 청년여성의 대표성, 농촌에서의 삶과 전망 등 지역별 의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함
- * 2020년 9월4일~5일까지 베를린에서 ‘젊은 농촌여성의 디지털 참여 강화’를 주제로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고, 분과 세미나에서는 젊은 농촌 여성 대표성 강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젊은 농촌여성에 관한 홍보 확대 등이 논의되었음
- 3단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젊은 농촌여성 그룹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6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 농업식품부의 재정 지원을 받음

○ 농촌 여성 창업 지원 프로젝트 ‘Selbst ist die Frau(Herself is the Women)’

- 농촌 여성 창업을 위하여 배움과 창업을 연계한 여성들의 프로젝트임
- 창업 경험이 있는 선배 농촌 여성과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창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 자영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배 창업 여성들이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독일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농촌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독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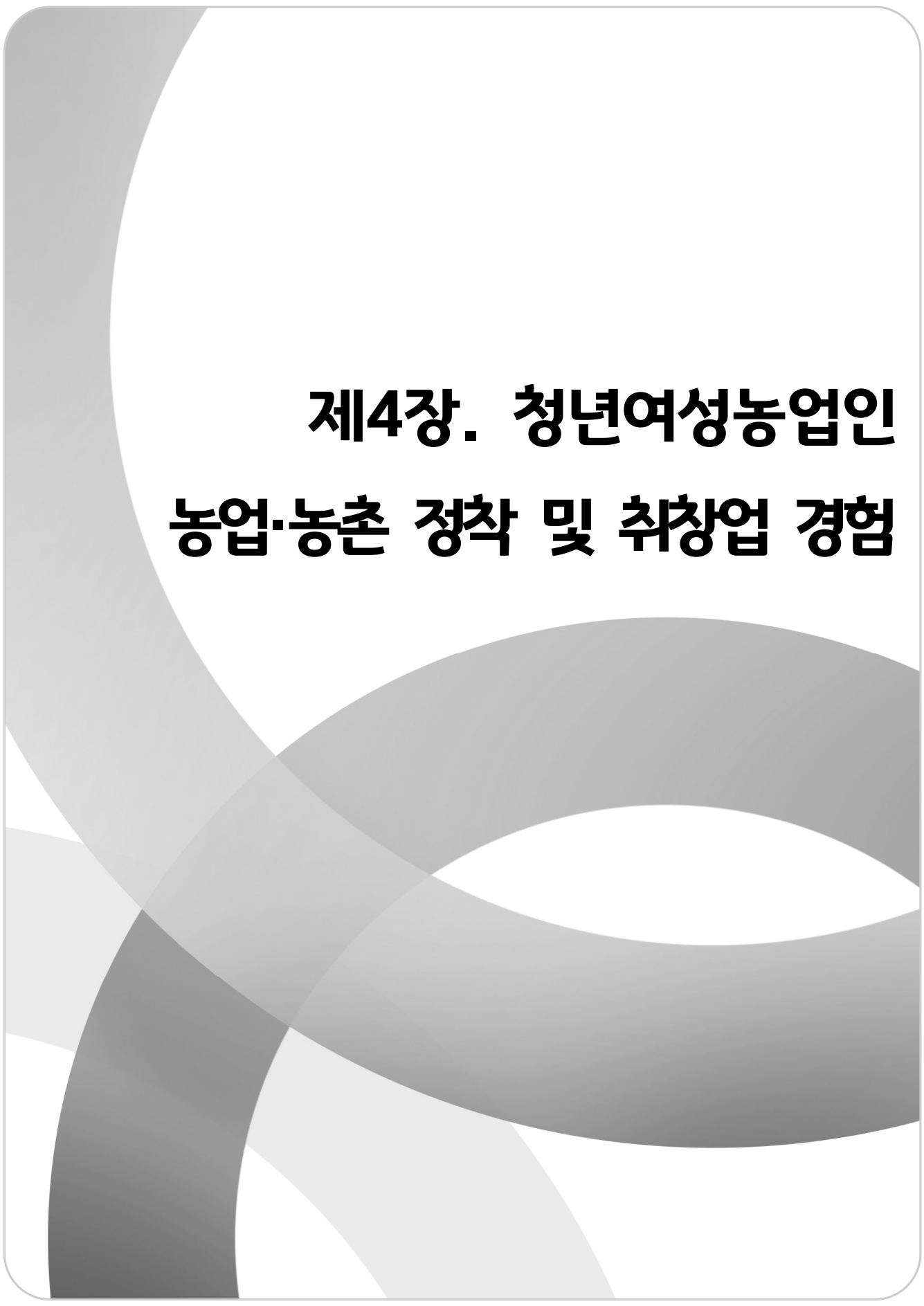
7) 임소영 외(2020:56)를 참조하였고, 독일 농촌 여성 협회 홈페이지(<http://www.landfrauen.info>)에 게재된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요약함

국 권역별로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젊은 농촌 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함

2) 일본: 가족경영협정 제도⁸⁾

-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가족 간 경영방침, 농업경영 참여자의 역할, 취농 조건, 취업환경(보수, 휴일·휴가, 보험료 등)등에 대한 합의를 결정하는 협약임
- 가족경영협정은 여성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종사와 가사·육아·간병 등을 가족구성원이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됨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음
 - 가구 당 연금가입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5년 「농업자 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전업농 여성이 본인 명의 농지가 없거나 농지 면적이 3,000m² 미만인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또한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경우,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 선정 시 1.5배를 지원하고 농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부부 공동인정 농업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가 증가 추세임(전체농가의 27%)
- 우리나라도 부부 간, 부모·자녀 간 책임 공유와 갈등 해소 등 요구가 많은 상황임. 농업경영체 등록 시 복수의 농업인(후계자포함)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 복수의 연금 지원을 받는 농가(후계자 포함)를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우선 홍보하고 협정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이순미 외(2020:63~64), 최정신(2019), 태희원 외(2020)를 참조하여 재인용



제4장.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 정착 및 취창업 경험

제4장 청년여성농업인 농업·농촌 정착 및 취창업 경험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방법

- 목적: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경험(정착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정책 욕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
- 대상: 만19세~39세까지의 청년여성농업인 40명 (영농유형별)
 - 영농유형
 - 농업전업: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겸업(농업·농촌): 가공·체험 등 6차 산업을 겸하는 경우
 - 겸업(타산업): 농업(1차)과 6차 산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취업(농업·농촌): 비농업인으로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를 가진 경우
 - 탈농업은 농업에 종사하였다가 그만 둔 경우(도시로 이주했거나 재촌 등)
- 조사 기간 : 2021. 6. 28. ~ 7. 11.
- 조사 방법 : 지역별 방문 대면 면접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청년농업인연합회, 4H 등 청년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단체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사업 담당자, 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강원·경기·경북·전북 여성정책기관 여성농업인 정책 선행 연구자, 전남·금산·용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청년 농촌이주 관련 선행연구자 등 협조를 통하여 대상자 섭외
 - 농업전업, 겸업(농업·농촌) 부분은 전국적으로 청년여성농업인 키퍼슨(Key person)이 있어 대상섭외, 연구참여 동의가 용이하였음. 이에 비해 겸업(타산업), 취업(농업·농촌), 탈농업 유형은 기존 단체나 정책연구자와의 연결선이 미흡하여 섭외가 어려움
 - 대면 면접조사는 전국 청년여성농업인의 이동거리·시간소요 등을 고려, 연구진이 지역에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면접조사는 온라인 회의(zoom) 방식으로 실시
 - 면접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파악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 유선면접 진행

<표 4-1> 청년여성농업인 심층면접조사 실시 일정

지역	방법	일시·시간	장소	참여인원
충남	대면	6.29.(화) 13:00-16:30	충남농업기술원 회의실	6
충북	대면	6.30.(수) 09:30-12:00	청주시 00농원	3
경남	대면	7.3.(토) 13:00-16:00	창원시 00농원	4
전남	대면	7.4.(일) 13:00-16:00	광주송정역 인근 카페	3
경북	대면	7.5.(월) 13:00-16:00	안동시 00고택	5
전북	대면	7.6.(화) 14:00-17:00	전주시 인근 카페	4
경기	대면	7.8.(목) 13:00-16:00	화성시 인근 카페	4
강원	대면	7.9.(금) 15:00-18:00	원주시 인근 카페	2
강원	대면	7.10.(토) 11:00-12:00	춘천시 인근 카페	1
강원	대면	7.10.(토) 13:00-15:00	춘천시 인근 카페	1
충남, 경북	비대면	7.11.(일) 10:00-12:00	온라인(zoom)	3
경기, 경남, 서울, 충남	비대면	7.11.(일) 17:00-19:30	온라인(zoom)	4

나. 조사 내용⁹⁾

○ 청년여성농업인 일반적인 특성

- 영농유형, 주작목, 부모기반, 정착기간을 기본으로 유형화함

<표 4-2> 청년여성농업인 유형화 항목

1. 영농유형	2. 주 작목	3. 부모기반	4. 정착기간
<input type="checkbox"/> 농업전업 <input type="checkbox"/> 겸업(농업·농촌 관련) <input type="checkbox"/> 겸업(타 산업) <input type="checkbox"/> 취업(농업·농촌 관련) <input type="checkbox"/> 탈농업	<input type="checkbox"/> 논벼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채소·발작물 <input type="checkbox"/> 시설채소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특용작물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가공·체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농촌살이 기간 <input type="checkbox"/> 영농기간

주 1. 부모기반 있음: 부모가 농업인이거나 귀농인으로 주거, 농지, 기술, 기계, 인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경우

9) 조사 질문지는 부록 2. 참조

- * 조사 당시에는 승계농, 신규농 여부로 질문하였으나 승계 여부와 내용이 다양하여 부모기반 있음, 없음으로 수정하여 분석함
- 사회문화적 특성: 거주지, 연령, 농촌살이 기간, 영농기간, 혼인 상태, 부모세대와 거주, 학력, 농업계, 귀농형태
- 경제적 요인: 경영형태, 농업규모, 농지·시설·농기계 소유 여부, 스마트 영농 여부, 지원정책 수혜 여부, 부채
- 사회적 요인: 활동 범위, 단체 활동, 문화활동, 정보화 활용
- 농업·농촌 정착 경험(정착단계별 서술)
 - 정착 단계는 탐색기, 준비·계획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로 구분하였음. 정착단계의 설명은 <표 4-3>과 같음
 - * 조사 결과는 시작·실행기는 5년 이내, 지속·발전기는 5년 초과를 기준으로 정리함
 - 계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어려웠던 점, 해결한 방법들

<표 4-3> 청년여성농업인 정착단계 항목

항 목	답 변
정착 단계	① 탐색기: 농촌·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는 시기 ② 준비·계획기: 농촌 살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③ 시작·실행기: 농촌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농업을 시작하는 초보기 ④ 지속·발전기: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지속하며 발전하는 시기 ⑤ 탈농업: 농촌 살이와 농업 종사를 계획, 실행, 지속하다가 탈농촌·탈농업한 사람 (□도시로 이주 탈농업 □ 농촌에 살면서 탈농업)

- 정책 욕구: 정착단계별 필요한 정책, 농업·농촌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생활환경 개선

2. 조사 참여자 특성

가. 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

- 조사 참여자는 40명이며 연령은 20대가 7명, 30대 33명이고, 혼인상태는 기혼 13명, 비혼 27명임. 정착단계는 시작실행기가 12명, 지속발전기 16명으로 나타남. 앞서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2018)에서 30대 이하 청년여성농업인 표본의 95.2%가 기혼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심층면접 참여자는 비혼 여성으로 농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4> 조사참여자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인원 수	비율
계		40	100.0
사회문화적 특성	연령	20대	7 17.5
		30대	33 82.5
	부모기반	있음	24 60.0
		없음	16 40.0
	혼인여부	기혼	13 32.5
		비혼	27 67.5
	농촌살이 기간	5년 이내	29 72.5
		5년 초과	11 27.5
	영농 기간	5년 이내	23 57.5
		5년 초과	17 42.5
	거주형태	시부모와 거주	0 0.0
		본인부모와 거주	13 32.5
		단독거주	27 67.5
	귀농형태	귀향	10 25.0
연고지		9 22.5	
무연고		15 37.5	
해당없음		6 15.0	
정착단계	준비계획기	4 10.0	
	시작실행기	12 30.0	
	지속발전기	16 40.0	
	(탈농업)	4 10.0	
	취업(농업농촌)	4 10.0	

○ 영농유형별로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5> 조사참여자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영농유형별)

(단위: 명)

구분		전업	겸업(농업농촌)	겸업(타산업)	탈농업	취창업(농업농촌)	
계		10	13	7	4	6	
사회문화적 특성	연령	20대	1	2	2	0	2
		30대	9	11	5	4	4
	부모 기반	있음	6	10	4	1	3
		없음	4	3	3	3	3
	혼인 여부	기혼	4	4	2	2	1
		비혼	6	9	5	2	5
	농촌 살이 기간	5년 이내	4	3	1	3	2
		5년 초과	6	10	6	1	4
	영농 기간	5년 이내	6	6	7	4	0
		5년 초과	4	4	0	0	0
	거주 형태	시부모와 거주	0	0	0	0	0
		본인부모와 거주	4	4	3	0	2
		단독거주	6	9	4	4	4
	귀농 형태	귀향	2	3	2	1	2
연고지		2	5	2	0	0	
무연고		4	3	2	3	3	
해당없음		2	2	1	0	1	
경제적 특성	주작목	논벼	1	0	0	0	-
		과수	3	1	0	2	-
		채소·발작물	3	6	3	2	-
		시설채소	1	1	3	0	-
		축산(양봉)	0	3	0	0	-
		특용작물	1	2	1	0	-
		화훼	1	0	0	0	-
		가공체험	0	(13)	0	0	-
	경영 형태	부모와 공동경영	4	3	0	0	-
		배우자와 공동경영	2	3	1	1	-
단독경영		4	7	6	3	-	
정착단계 (농업인만)	준비기	2	0	0	-	-	
	시작실행기	5	3	5	-	-	
	지속발전기	3	10	2	-	-	

주. 가공체험은 겸업(농업농촌) 유형 모두에 해당함

<표 4-6> 조사참여자별 영농유형 및 기본 특성

번호	연령	영농유형	주작목	혼인상태	부모 기반	거주형태	농촌살이 기간	영농기간	귀농형태
1	32	농업전업	채소.밭작물, 시설채소	기혼	O	단독거주	22년	2년	귀향(본인)
2	38	농업전업	논벼, 채소.밭작물	비혼	X	단독거주	2년	4년	무연고
3	39	농업전업	과수	비혼	X	단독거주	12년	7년	무연고
4	38	농업전업	과수	기혼	X	단독거주	1년	8개월	무연고
5	34	농업전업	시설채소	기혼	X	단독거주	6년	6년	연고지(남편)
6	32	농업전업	특용작물	비혼	X	본인부모와 거주	3년	3년	연고지(본인)
7	29	농업전업	논벼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29년	7년	해당없음
8	31	농업전업	화훼	비혼	O	단독거주	3년	3년	무연고
9	37	농업전업	채소.밭작물	기혼	O	본인부모와 거주	1년	1년	귀향(본인)
10	39	농업전업	과수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39년	12년	해당없음
11	38	겸업(농업농촌)	시설채소, 자연교육	기혼	O	본인부모와 거주	36년	3년	해당없음
12	31	겸업(농업농촌)	특용작물, 가공	비혼	O	단독거주	7년	7년	무연고
13	31	겸업(농업농촌)	시설채소, 마을조직 일	비혼	X	단독거주	3년	1년	무연고
14	24	겸업(농업농촌)	채소.밭작물, 시설채소	비혼	O	단독거주	25년	1년 6개월	무연고
15	34	겸업(농업농촌)	축산(양봉), 가공, 체험	기혼	O	단독거주	2.6년	3년	연고지(남편)
16	33	겸업(농업농촌)	과수, 가공	기혼	O	본인부모와 거주	33년	7년	고향
17	29	겸업(타산업)	밭작물, 농촌문화	비혼	X	단독거주	6년	3년	무연고
18	37	겸업(농업농촌)	축산, 과수, 가공	기혼	O	단독거주	5년	4년	귀향(본인)
19	33	겸업(농업농촌)	채소.밭작물, 가공.체험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9년	9년	귀향
20	37	겸업(농업농촌)	시설채소, 스마트팜, 가공	기혼	X	단독거주	0년	5년	무연고

번호	연령	영농유형	주작목	혼인상태	부모 기반	거주형태	농촌살이 기간	영농기간	귀농형태
21	35	겸업(농업농촌)	채소, 발작물, 판매	비혼	O	단독거주	5년	2년	연고지(본인)
22	28	겸업(농업농촌)	과수, 특작	비혼	X	단독거주	7년	7년	연고지(본인)
23	37	겸업(농업농촌)	축산(양봉), 꽃집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7년	7년	귀향(본인)
24	31	겸업(농업농촌)	과수, 채소, 발작물, 가공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31년	8년	해당없음
25	32	겸업(농업농촌)	채소 발작물, 가공, 체험	비혼	O	단독거주	7년	7년	연고지(본인)
26	36	겸업(농업농촌)	채소, 발작물, 체험/디자인	비혼	X	단독거주	8년	8년	무연고
27	30	겸업(타산업)	특용작물, 학습지도교사	기혼	O	단독거주	5년	5년	귀향(남편)
28	29	겸업(타산업)	채소, 발작물, 논벼, 예술강사	비혼	X	단독거주	6년	4년 6개월	연고지(본인)
29	35	겸업(타산업)	잡곡(콩), 언어강사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6년	2년	연고지(본인)
30	30	겸업(타산업)	시설채소, 디자인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20년	3개월	귀향(본인)
31	36	취업(농업농촌)	농산물 가공물 판매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8년	8년	귀향(본인)
32	35	취업(농업농촌)	친환경급식센터	기혼	X	단독거주	20년	6년	무연고
33	25	취업(농업농촌)	면 사무소 근무	비혼	O	본인부모와 거주	17년	-	해당없음
34	37	취업(농업농촌)	지역연구소 연구직	비혼	X	단독거주	8년	3년	연고지(본인)
35	35	취업(농업농촌)	청년공간 사무국장	비혼	X	공동거주(룸메 이트)	1년	-	연고지(본인)
36	29	취업(농업농촌)	휴양마을 사무직	비혼	O	단독거주	1년	0.5년	귀향(본인)
37	36	탈농업	편의점 아르바이트	기혼	O	단독거주	6년	5년	귀향(본인)
38	35	탈농업	택배 사무직	기혼	X	단독거주	5년	4년	무연고
39	39	탈농업	카페 취업	비혼	X	단독거주	3년	2년	연고지(본인)
40	39	탈농업	농촌 관련 창업	비혼	X	단독거주	2년	2년	연고지(본인)

3. 조사 결과¹⁰⁾

가. 농업·농촌 비전과 탈농업

1) 청년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비전

○ 청년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은 진폭이 큰 편임. 영농경력 9년차인 사례 19.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성과와 성취감,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사례 6, 사례 21.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은 낙관적이지는 않음. 비전과 전망은 영농경력, 농업으로 거둔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례 9가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장애물이 많은 경로임

- 농촌은 비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끈질기게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촌에 와서 더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할 수 있다. 저도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빠르지는 않아도 단계를 밟아왔다는 성취감이 정말 크다. 직장을 갔다면 계속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농업이라는 건 세무,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걸 내가 해야 한다... 처음에는 머리가 빠질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가다 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의 성장을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 또한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거리이고 그걸 책임지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점에 자긍심도 있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9년)
- 3억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3억은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농업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크게 농사를 하면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돈이 되긴 하지만 그 대비 순수익은 크지가 않다.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순수익이 5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천 버느니 그냥 취직하는 게 낫다. 몸이 다 고장나고 쉬는 날이 없다. 가치관이 많이 힘들었다. 지금은 다 포기해서 안정된 것이다.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만 지금은 있다. (사례 6. 32세. 비혼, 농업전업, 3년)
- 사실 없는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농업인이 지금 하지 않는다면 후속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팜 시설비가 10억이 넘어간다. 처음부터 빛내고 시작하라는 얘기로만 들린다. (사례 21. 35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2년)

10) 조사참여자는 사례 번호, 연령, 혼인상태, 영농유형, 부모기반 유무, 영농경력 순으로 표기하였음

2) 청년여성농업인의 탈농업 과정과 사유

- 탈농업은 농촌살이와 농업종사를 계획, 실행, 지속하다가 탈농촌·탈농업한 경우를 말함. 이 연구에서 만난 탈농업 청년여성 네 명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탈농업을 결심하게 됨
- 사례 37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상환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사례 38은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본인은 택배사무실 사무직 일을 시작함. 사례 39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면서 탈농촌·탈농업한 사례이며, 사례 40은 농촌 기반 지역단체의 남성중심성·불합리함에 실망하여 도시로 돌아간 사례임

- 정착농 지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타산업 종사(탈농업 준비중)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데 5년이 걸렸고, 열심히 했고,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깟 억 빛 값을 수 있고 콘텐츠도 많이 공부했다. 그러다가 녹다운(knockdown)된 것이다. 가공은 안할 것이다. 빛에 대해 이윤 따져보니 보조사업 자부담 굴레에 빠질 것이 예상되었다. 정착농 1기로 선정되었는데 농업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탈농업을 준비하게 됐다. (사례 37. 36세. 기혼, 탈농업 준비 중, 5년)

- 농촌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탈농업

농촌에 살고 싶고 농사 일을 하고 싶었으나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농촌·농업에서 이탈하게 됐다... 00공동체(여성농업인 꾸러미 작목반)에서 알아봐줘서 귀농인의 집에서 살았다. 1년 정도만 살 수 있는데 2년 정도 머물렀다. 남편 분이 비혼 여성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 탈농업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사례 39. 39세, 비혼, 탈농업, 2년)

-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마련 위해 탈농업(배우자는 농업 종사)

농업 부채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남편은 경영주로 있고 저는 타산업 소득활동(택배사무실)을 하기로 결정했다. 농촌에서 남성들은 일꾼으로 일할 곳이 많지만,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남편이 경영주인 것이 시행착오였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전공을 살리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자녀양육기에 있어 어렵고, 교통비 부담이 커서 포기했다. 형편이 나아지면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농업은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기도 하다. (사례 38. 35세. 기혼, 탈농업)

• 농업농촌 대안공동체의 남성중심성에 실망하여 탈농업

농촌에서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조직이 남성중심적인 기득권 인맥이 작동하고, 재능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을 쉽게 활용하고 보상과 명예를 주지 않는다. 월 50만원 가지고도 농촌살이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는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강의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왔고 도시에서 유기농업 관련 사업을 창업했다.(사례 40. 39세, 비혼, 탈농업)

- 탈농업 사유들은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고 정착을 시도하였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사유들을 선명하게 보여줌. “지금이 비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 (사례 21)의 표현처럼,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현재를 살피고, 좀 더 안전하고 완만한 정착 경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농업·농촌 관심과 시작 계기

-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모기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부모기반은 부모가 지역 농업인이거나 귀농인으로 청년여성농업인에게 주거, 농지, 기술, 기계, 인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경우를 말함
-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은 별도의 탐색기, 준비계획기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음
 - 대부분 부모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 부모의 농사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농업을 시작했음. 상황적 요인도 있지만, 본인이 ‘집안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계산과 감각도 농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 즉, 농업을 통한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일부는 본격적으로 농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의 농산물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주말에 농사 일을 도운 경험들에서 흥미를 느꼈음. 또한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느린 속도, 자연경관이 주는 편안함 등을 언급하며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또한 마음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함
 - 그 외 도시 삶에 지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농업을 하는 것이 당연해서, 지원 정책을 알게 되면서 속도있게 시작했다 등의 답변이 있었음

- 23년 동안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포도농사를 지으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직장생활 하던 중 아버지가 암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투병생활 중에도 계속 농사를 지으셨다. 그래서 거들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다고 느꼈다. 알 썩기를 내가 했는데 가을에 수확할 때 짜악 퍼져 있는 걸 보면 성취감도 든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농사를 전부 아버지한테 의존하시다보니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없었다. 남동생이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땅을 팔아서 학비를 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일 년 수확한 것 계산해 보니 월 300 정도 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팔지 말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남동생 학비까지 해준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이 땅을 어차피 팔 거였으니 판 셈 치고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0. 39세. 비혼, 농업전업, 12년)
-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좋아해서 거부감이 없었다. 부모님이 먼저 귀촌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다가 농지를 구입하셨다... 전에는 주말만 도와드렸는데 아버지 몸이 안좋아지시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겁 없이 하겠다 마음먹은 데에는 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농업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농업이 취직보다 제가 단기여행도 다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례 6. 32세. 비혼, 농업전업, 3년)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하고 의무영농기간 6년이 있었지만 농업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그러다가 집이 불과 몇십만원 때문에 비상상황이 생겼다. 의무영농기간도 채워야 하니 '내가 한 번 살려보자'하는 마음으로 직거래 등을 담당하게 됐다.... 저희가 유기농 생산단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안맞으면 창고로 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딸이로 팔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직거래로 풀어주다 보니 상황이 나아졌다. 부채도 모두 상환했다. (사례 7. 29세. 비혼, 농업전업, 7년)

- 부모기반이 없이 무연고로 농촌에 이주하여 농사 일을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은 건강·먹거리·생태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았음
 - 마르쉐 장터나 우프(WWOOF11), 유기농가에서 숙식하고 일을 도움),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때 알게 된 사람·단체를 통해 농촌지역 정보를 알아보고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됨. 비혼 청년여성의 경우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주거지 여부가 선택에 영향을 미침

11) WWOOF(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는 유기농가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임

- 또한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농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정책을 신청하기 위해 등의 답변이 있었음

- 23살 때 호주에서 우프에 참여했었고 일본 야마개시 공동체에서 굴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일본에는 이런 공동체가 많다. 한국 농업이 궁급했다. 2010년에 마침 귀농한 동생이 있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귀촌의 계기를 본격적으로 살피게 됐다....마르쉐 장터에 갔다가 논농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린 농부님이 쉼어하우스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그 다음날 내려와서 참여하게 됐다. (사례 2. 38세. 비혼, 농업전업, 4년)
- 저는 00리에서 농촌과 관련한 문화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농산물이 부록인 잡지를 만들었다. 사실 정착농 정책이 크게 작용을 했다. 원래는 농사를 5년 정도 뒤에 지어야 겠다, 27살이었으니까 농촌에 사면서 마을 문화활동 위주로 활동해야 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농촌에서 먹고 살게 없는데 정착금을 100만원을 준다고 하니 이장님도 해보라, 다른 지역 분들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급하게 땅을 알아보러 다녔다.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농업·농촌 관련 분야 취업자(체험농장, 면사무소, 청년공간 등)는 사전에 관련 농촌 지역 단체나 기관과 교류하며 관계를 맺었고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서 농촌생활을 시작함(사례 34, 35, 40). 고향인 경우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사례 33)가 있었음

다. 농업·농촌 정착 경험과 애로사항

1) 자립 요인: 주거, 정착금, 네트워크(사회활동)

□ 주거

- 주거지 마련 어려움은 모두 부모기반이 없는 청년여성농업인의 답변에서 나타났음. 특히 무연고 비혼 여성은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등 전 단계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농업을 준비하며 이주할 때 여성 전용 쉼어하우스, 여성농업인 공동체가 소개해준 귀농인의 집 등 임시주거지가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되거

나 거주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주거기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거주기간 1년은 무연고, 비혼 여성이 자립하기에 짧은 기간이며, 이들 여성에 대한 농촌 주민의 배타적인 시선이 농촌 정착을 막는 요인이 됨(사례 2, 39)

- 농업 시작기에 농촌마을에 집을 구해 혼자 들어가는 것은 대한 두려움이 있음(사례 17). 집을 구했지만 여자 혼자이면 열악한 상태의 좁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식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흙집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부담, 농업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집세 부담으로 빈곤상태에 처하기도 함(사례 2)
- 사례 26은 영농경력이 8년이지만 용자를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농막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로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껴 본인이 운영하는 농촌체험농장 홍보도 주저하게 되는 상황에 있음

- 셰어하우스 사업이 종료되면서 탈농촌했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는 6평 정도 되는 흙집에 월 15만원 내고, 농가주택 관리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사례 2. 38세. 비혼, 농업전업, 4년)
- 00공동체(여성농업인 꾸러미 작목반)에서 알아봐줘서 귀농인의 집에서 살았다. 1년 정도만 살 수 있는데 2년 정도 머물렀다. 남편 분이 비혼 여성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 탈농업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사례 39. 39세, 비혼, 탈농업, 2년)
- 00리에 집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집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고. 부모님이 반대하셨다. 여자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주거가 진짜 고민이 됐다. 지금은 면 소재지에 월세를 겨우 구했다. 3가구 밖에 안 되고 옆집에 농사 지시는 여자가 50대이고 혼자 사신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농막에서 거주하고 있다. 빚 갚을 것이 많아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옮겼다. 여자 혼자 농막에 사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숨긴다...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다 보면 누가 가까워도 잘 모른다. 지난번에는 남자 두 분이 농사일 궁금하다면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놀랐다... 사실 농촌체험농장 홍보도 해야 하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니 안전 때문에 꺼려진다. 방송 출연 요청도 오는데 못나간다고 한다. (사례 26. 36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8년)

- 특히 부모기반이 없는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들에게 주거지는 농업·농촌 진입과 정착의 핵심 요인임. 조사 참여자들은 청년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나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

- ※ 관련 정책 사례: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사업은 지자체 공무원이 쉐어하우스 거주자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연계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또한 홍성군의 경우 지역의 단체 명의로 (젊은협업농장) 주택을 임대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며 주택관리 등을 단체가 수행함(3장 참조, 김정섭 외(2018) 참조)

□ 정착금

- 정착금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생활자금을 말함
-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면서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한 통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임. 이 사업은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진입 선택을 촉진하고 도움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과정을 급격하게 축소시켜 정착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경험되기도 함.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례 17은 농촌 관련 문화컨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었지만 정착금 지원 정책을 신청하며 급하게 농지를 구하고 농사 일에 뛰어들게 되었음
- 또한 농지 주인이 임대계약서 쓰는 것을 거부해서 농사는 시작했지만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 정착농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 작업 자체에 조력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사례 2, 4, 13)
 - 무연고 기혼인 사례 38.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농사를 시작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밤에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귀농귀촌센터에서는 “인맥을 통해 빨리 (지원사업) 신청을 하라” 고 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말임
 - 무연고 비혼인 사례 2는 농사는 시작했지만 영세한 규모로 생산한 발작물의 판로를 찾기도 어렵고 수익은 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빈곤상태에 이르게 됨. 정착농 지원사업을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주변에 가이드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계획서를 써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임

• 혼자 농사짓는 여성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 조금 농사를 짓는데 남성들과 흐름을 같이 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을 써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15만원 지원되는 그거 하난데 솔직히 많이 억울하고 속이 상했다.... 정착농 지원사업은 땅도 있어야 하고 땅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 땅 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준다고 해서 골치를 좀 앓고 있다. 정착농 지원사업 기획서는 작년부터 뽑아서 어떻게 쓸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못쓰고 있다. 다들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깐, 제가 절박하게 도움을 구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더 위축되서 그런 점도 있긴 하다. (사례 2. 38세. 비혼, 농업전업, 4년)

- 농지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다. 땅 주인은 계속 해도 좋다고 했지만 빨리 돈을 모아서 땅을 구하고 싶다.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있어야 기계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 귀농귀촌센터는 “인맥을 통해서 빨리 신청을 해보라” 이 정도 말씀만 하신다. 정책이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 4. 38세. 기혼, 농업전업, 8개월)

□ 네트워크(사회활동)

- 앞서 전술한 사례들처럼 주거지와 정착금 등 농업·농촌 자립에 기초적인 자원이 없고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신청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은 농촌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부재에서 기인함
- 지역에 먼저 정착한 청년여성농업인이 신규로 귀농한 예비 청년여성농업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주거지, 농지 등 자원을 얻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었음 (사례 9, 23). 사례 23은 00군 4H 회장으로 신규 귀농한 청년여성농업인과 4H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지를 구하는데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가까운 거리에 청년여성농업인이 안전하게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또래/선배 여성농업인 등 친절한 안내자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신규 청년여성농업인들의 농업·농촌 정착이 보다 용이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함(사례 34)

- 도시에서 마사지를 직업으로 한 언니가 있는데, 청착농이 아니어서 땅도 없고 작물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집은 구한 상황이었고... 오늘 과제포를 했던 토마토 농장은 농사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집이 임대했던 농지가 있고 임대계약서도 썼지만 놓아야 하니 이 언니가 그 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구하게 됐다. 이 언니가 경락을 했던 사람이라 우리(4H 회원)에게 혈이나 이런 걸 설명해주고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녹아든 사람이었다. 그렇다보니 이런 정보가 그 언니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모아둔 돈만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례 23. 37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7년)
- 사실 모든 정보와 교육이 여성을 생각했을 때는 매뉴얼화되거나 교육과정으로 전해지기 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선배 여성농업인을 통해 농업기술, 접근방법, 자원정보로 다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 나도 저렇게 하며 되겠다 하는 생각.

농업은 깜깜이 다양 불안정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선배 농업인은 등불 같은 존재다. 몇 명 더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다.... 여성의 경우 안전한 관계. 신뢰가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 지역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청년 여성을 위한 모든 시스템은 아니어도 이 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임파워하는 여성농업인 등 이런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례 34. 37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없음)

- 또한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에도 주변에 본인처럼 농사를 짓는 청년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낌
- 귀농 초기 청년여성에 대한 편견에 위축되기도 했고, 힘든 농업노동을 하면서 도시의 또래 청년여성과 비교하며 농업인으로서 회의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기도 함
 - 청년여성농업인 전국 단체인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청여농)이 2016년에 설립되었는데 회원들은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청년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농업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함
- 관심사를 함께 하는 또래/선배 여성농업인과의 만남은 정서적인 위안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고, 여성농업인으로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에도 도움을 줌
-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또래/선배 여성농업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멘토멘티, 네트워크 그룹)이 보다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힘

- 처음에는 편견이 힘들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재가 왜 왔을까. 시집갈 때가 됐나? 직장에서 짤렸나? ... 청여농(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난 메리트가 없어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 여기 동네에는 없으니까. 전국에서 10명이나 되는 줄 알았다. 부모님 농사 물려받아서 지으려는 사람이. 모아놨더니 100명 정도 되고... 그게 위로가 된다. 좋았다.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사례 16. 33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7년)
- 자연에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게 좋긴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적으로 혼자 많이 해야 해서 외로운 부분들이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온다... 솔직히 나이대가 주변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꾸미고 커리어우먼처럼 사는 시기에 나는 몸빼바지 입고 호미, 낫 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감도 들 때가 있었다. ... 그러던 중에 2016년 하반기 쯤에 청년여성인협동조합, 청연이 생기기 시작

하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이외에도 많이 있구나. 더불어 진취적인 삶을 사는 그 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멘토멘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룹이 많이 생겨야 그 사람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그 단체 덕분에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고민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9년)

- 여성농업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목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60대 선생님들을 만났었는데 친환경 농산물 거래하는 곳인 자연드림의 워크숍에 참가해서 같은 숙소를 쓰시던 분들께 농사짓게 되는 과정 및 현재의 상황,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워크숍이든 간담회든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례 11. 38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3년)

2) 자본 요인: 농지, 자금, 기계

□ 농지

- 농지를 구하는 문제는 부모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임. 조사 참여자 중 일부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청년귀농장기교육이나 마을 활동을 통해 4H단체 지인이나 마을 이장과 인맥을 형성하고 농지를 구한 경우가 있으며,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농지를 구한 경우가 있음. 연고지에서 농사를 시작한 사례 22는 농지를 사전에 수소문하고 부동산을 통해 구함
- 그러나 부모 기반이 없는 청년여성농업인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는 농지 구입만큼이나 어려운 과업임. 농지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고 지원사업 신청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사례 2, 13, 38)
- 또한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 역량이나 농작업 여건에 맞지 않는 농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함. 사례 2은 농기계 작업이 불가해 마을에서는 농사짓기 어려운 땅으로 알려진 농지를 구했고, 사례 26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받은 농지가 논을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결국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동네 남성이 농사를 대신 지음

- 난 연고지도 없었고 단감농장 3천평도 여기에서(귀농장기교육과정) 만난 4H동생이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된 거였다. (사례 3. 39세. 비혼, 농업전업, 부모기반 없음, 7년)
- 농지를 연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기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해서 예전에 귀농했던 사람이 포기하고 간 곳이었다. (사례 2. 38세. 비혼, 농업전업, 4년)
- 처음에는 마을회관 찾아다니면서 농지 있냐고 알아봤다. 두 번 농사를 지었다가 질 만하면 땅 뺏기고 그런 걸 두 번 겪었다.... 농지은행에서 5천평 임대했는데 사실 밭이 아니고 논이었고 조건은 밭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내 이름으로 빌렸음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동네 오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26. 36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8년)
- 농지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땅은 비싸고, 농어촌공사 농지는 농사 짓기 안 좋은 땅이 많다.... 농지를 쓰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이끼리 좀 주는데 청년들은 안준다. 기술이 없으니까 자기 땅을 망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연고지가 제일 낮고 제일 중요한 건 멘토. 그 지역에서 누구 한 명 알면 그 분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니까 그게 중요하다. (사례 36. 29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6개월)

□ 자금

- 부모기반이 없이 농사를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초기 자금으로 농지는 구했지만, 농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지 기반시설 마련, 농자재 구입, 농작업 비용 등 상당한 영농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음
 - 사례 17은 ‘회사에 입사하면 일을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임금이 나오는데, 농사는 열심히 해도 소득은 안생기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초보 농부 현실을 설명함
 - 부모기반이 없는 신규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지 임차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보조사업자부담), 전기·관정·비닐하우스 등 시설비, 농기계 농작업 비용 등 모든 것을 개인이 새롭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큼

- 농사 짓는 것은 재미있는데 돈이 금방 보이지 않는 것은 힘든 것 같다. 사회생활 입사하면 일을 열심히 하든 안하든 돈이 나오는데, 농사는 열심히 해도 돈이 안나오고, 300평 가지고는 나오는 게 없다.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콩을 사는 것도 비닐을 사는 것도 내 돈 주고 사는 거고. 그나마 청착농 자금

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니었을 때보다는 도움이 된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 극소농이다보니 수익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정책 관련해서도 소농이라고 정책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 농업 관련 정책은 큰 규모의, 예를 들어서 작은 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기가 300만원인데 보조해줘서 50%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내 땅이 있어야 놓을 자리가 있는데 내 땅이 없었고... 지금도 밭에 아직 전기나 관정을 안파서. 그것도 다 돈이다.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걸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나는 거다... 농업 관련 정책은 농업법인, 협동조합, 개인농가 지원 보다는 규모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고. 제한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하수 파는 것만 해도 몇백 몇천만원. 소형 관정이 200만원인데 샘이 안나오면 중형 관정 600만원 대형 관정은 1000만원. 다른 사람 것은 쓰게 안해준다. 뭐가 잘못 된게 있으면 안되니까.... 전기도 따야 되지. 시설 했는데 못하면 혼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사람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르는 것도 돈이고. 시골로 오려면 본인이 다 해야 하는데. 여자 혼자 농사짓는 것은 어렵다. (사례 16. 33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7년)
- 오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돈 500만원으로 시작했어야 했고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과수는 단감이었다. 거의 제 손으로 해서 과수 3,500평을 365일 중 350일을 밭에서 일했고 혼자 하다 보니 인건비는 안들었다. 비가 와도 일을 한다. 그만큼 좋아서 한 것이다... 제일 걱정되는 건 돈이다...지금 제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있냐고 항상 얘기한다...과수는 딱히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시작은 해볼 수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1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니만큼 앞에 비닐 하우스라도 하나 지어놔야 비올 때 선별이라도 할 수 있다. (사례 3. 39세. 비혼, 농업전업, 7년)

-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정책 지원(융자)을 받아 농업 규모를 키운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몇 억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심경을 밝힘(사례 6).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을 통하여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농업 수익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은 '탈농업'으로 이어지기도 함(사례 37)

- 3억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3억은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농업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크게 농사를 하면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돈이 되긴 하지만 그 대비 순수익은 크지가 않다.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순수익이 5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천 버느니 그냥 취직하는 게 낫다. 몸이 다 고장나고 쉬는 날이 없다. 가치관이 많이 힘들었다. 지금은 다 포기해서 안정된 것이다.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만 지금은 있다. (사례 6. 32세. 비혼, 농업전업, 3년)

-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데 5년이 걸렸고, 열심히 했고,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깟 억 빚 갚을 수 있고 콘텐츠도 많이 공부했다. 그러다가 낙다운된 것이다. 가공은 안할 것이다. 빚에 대해 이윤 따져보니 보조사업 자부담 굴레에 빠질 것이 예상되었다. 청착농 1기로 선정되었는데 농업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탈농업을 준비하게 됐다. (사례 37. 36세. 기혼, 탈농업 준비 중, 5년)

□ 기계

- 농기계 보유와 사용 정도는 부모기반, 영농경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고, 부모기반이 없고, 시작·실행기에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농지 외에 수확에 필요한 트럭이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음
 - 또한 지역 주민에게 농기계를 빌리거나 농작업을 부탁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함. 일부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썩썩한 성격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사례 3, 21), 매번 마을 어른이나 청년 남성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두가 바쁜 농번기에는 더욱 여의치 않은 것도 현실임(사례 37). 사례 17은 마을 어른들과 관계가 친밀하지만, 농기계 농작업을 도와주시는만큼 본인도 어른들 농작업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는 농촌 문화컨텐츠 제작자인 사례 17이 농사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부족과 피로감에 지친 상황에서 나오는 솔직한 심정임
- 농기계 운전은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의견이 많았음. 농기계 운전을 직접 한다고 해도 여성 혼자 작업하기에는 신체적·체력적으로 무리가 있고, 작업을 함께 할 보조인력 인건비가 소요됨(사례 37). 농기계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부담이 큼(사례 9, 17)
- 농촌 출신으로 영농경력 12년차인 사례 10은 일부 농기계는 여성 신체사이즈에 맞춰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방제복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남성용을 지급했다면서 이를 “사회의 모든 것이 남자에 맞춰져 있다”고 표현함. 청년여성농업인 일상에서 농업·농촌 정책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체감하는 것임

- 땅 임대를 받았는데 기계가 없어서 이장님이 트랙터, 관리기 작업을 다 해주신다... 처음에는 밧도 모르니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세를 알게 된 거다. 저희 동네는 돌이 많아서 굴착기가 필요한데 한번 빌리는데는 50만원이다. 사람까지, 트랙터도 한 번 갈아주는데 20만원. 하나 하나 따지니까, 내 밧에 투자한 게 많은데 어차피 내 밧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걸 다 해야 되고, 수익은 없다.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여성이 혼자 할 수 없는 농기계 농작업 지원은 시급하다. 저는 농기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동물원 수준으로 바라보신다... 마을 분들은 누구 집 딸래미 야무지다 칭찬을 하셨지만, 사실 야무진 게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거다... 내가 기계를 하면 마을 한 분은 고용을 한다. 혼자서는 기계를 못돌린다. 힘이 들어서, 풀 베고 하는 것은 손뼉으로 해야 하는데 그 때 사람을 부르고, 관리기 돌릴 때 아저씨를 부른다. 기계 자체가 남성화되어 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사용하기 어렵다. 제가 누르면 붕 뜬다. 그래서 아저씨를 부르는데 관리기 전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바쁜 시기에, 자기 농사 짓기에 바쁘다. (사례 37. 36세, 기혼, 탈농업, 5년)
- 다른 농기계는 조정해서 운전할 수 있는데, 지게차나 트랙터는 의자가 고정이다. 여자 신체사이즈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사회의 모든 것이 남자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방제복을 한 가구에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다. 전부 남성사이즈. 필요하니까 수선비 2만 5천 원 주고 수선해서 입었다. (사례 10. 39세, 비혼, 농업전업, 12년)

3) 기술 요인: 기술, 노동부담, 시장, 네트워크(경제활동)

□ 기술

- 대다수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영농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임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업기술이나 가공·체험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농업에 활용하고 있었음
 - 또한 농업전문교육 참여는 농업기술 전문화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 일을 하면서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 농업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됨

- 시골 내려와서 주변 어른들 농산물 직거래하는 일을 돕다가, 무언가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에 2015~2016년도에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일년 동안 780시간 교육을 받았고 큰 도움을 받았다. 당시 받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교육들을 토대로 향후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 때의 교육들이 저에게는 준비였다고 생각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민간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사례 12. 31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7년)
- 부모님이 추천해 주신 분의 얘기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알려주신 분의 재배사와는 환경이 다르고 버섯은 굉장히 예민하다.... 농업전문교육을 받지 못해서 고급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커서 금액대가 높은 교육도 많이 찾아다녔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 생각되는 곳은 한농대 품목대학에서 한 교육이었다... 전국의 버섯에 있어 내놓으라 하는 분은 다 계셨다. 그 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동기생 중 한 분을 멘토로 삼아서 문제가 생기면 여쭙보고 농장 오가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정책의 변화라든지 올해는 군사가 어떻게 되어서 뭘 준비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사례 6. 32세. 비혼, 농업전업, 3년)
- 농업포털사이트 들어가니 증급을 위한 스텝업 교육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초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하기가 좀 그랬다. 원래 서울에서 해도 할 생각이었는데 지역이어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사례 10. 39세. 비혼, 농업전업, 12년)

- 농업이 다각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데 지역에는 여전히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정부기관의 교육 분위기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의무교육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강사진 교육생이건 열의가 없다는 점, 최신 트렌드와 교육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SNS를 활용한 판매·마케팅 분야의 경우 청년여성농업인의 관심도가 높는데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이 반복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분야별로 교육 콘텐츠·강사의 내실화, 단계별 교육 설계와 실행 필요성을 강조함

- (정부기관) 교육에 가봤는데 다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배우고자 하려는 게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와닿지 않았다. 차라리 네이버로 판매를 하고 싶다 하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가서 듣는다.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은 어르신들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 제가 듣기에는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까. 안 듣게 된다. (사례 16. 33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7년)

- 정착농 의무교육은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어서 커뮤니티 면에서는 좋았다. 불편했던 것은 사실 마케팅 브랜딩 이런 부분은 교육생 중에서 팔로워 수가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사는 강의만 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았다. 사례만 알고 계신 정도... 기존의 영농교육을 갖다 붙이다보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서, 스마트스토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알지만 마케팅을 확장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뭘 누르고 뭘 해야 한다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안맞았다.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농업 준비계획과 관련한 교육은 민간기관의 교육이 내실있지만 교육비 부담이 있고, 정부기관의 교육은 초보 청년여성농업인의 상황을 고려한 콘텐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청년여성농업인의 롤모델이 될만한 여성농업인 강사는 거의 없고, 성공한 농업인의 사례는 초보 농업인의 현실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기귀농교육은 교육적인 부분보다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물론 커리큘럼도 좋고 발전된 농가 견학도 좋았지만, 초보농사꾼 입장에서 접목하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농기계를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공도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농장만 다니는데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견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4. 38세. 기혼, 농업전업, 8개월)
- 00시 농업기술센터 귀농학교에 갔다. 세 달 동안 이수를 했고 인터넷 교육도 듣고. 귀농귀촌센터에서 듣고 00대에서 또 듣고. 무료로. 자부담을 하고 들으려면 부담감이 있다. 소액이라고 해도 자부담은 청년들에게 부담될 것 같다... 귀농귀촌교육 180시간 들었는데 농사하는 법은 안가르쳐준다. 스마트팜 이런 것만 가르쳐준다. 실습이라고 토마토 농장에 가서 토마토 꺾이 아니라, 화분을 만들어왔다. 차라리 접하는 것을 알려주던지. 순을 자르면 더 잘 자라요 이런 걸 알려주던지. 스마트팜 대표라고 최상급이고 몇십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 그걸 누가 하겠나... 강사 스무 명 중에서 여성은 세 명이였다. 그 분들도 농사 쪽이 아니라 발전지원금을 찾아라, 시골에 발전지원금이 많다 그런 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다. 농사를 기준으로 오시는 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례 9. 37세. 기혼, 농업전업, 1년)

- 여성농업인을 농업인의 주체로 보지 않는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에게 교육 차별로 경험됨.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인 청년남성농업인이 농가 대표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에서 본인의 역량강화는 후순위로 밀리게 됨

-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강사가 성차별적인 농담과 발언을 빈번하게 하고 여성농업인을 비하하거나 농업의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내재해있어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농기계 교육에서는 여성을 교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습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기혼 여성농업인(공동경영주)은 역량강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농업전문교육은 남편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남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할 때 농사일, 자녀양육, 가사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임

- 세무 교육을 받았을 때 강사님이 집에 있는 아내들을 바지 사장으로 하면 되고, 아들에게 증여를 해줘야 하고 사례를 엄청 그런 식으로 들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자들을 만나는데 여자들한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 넘어온다, 말은 안했지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았다. 강사의 자질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도 기존의 오십대 육십대 남성 위주로 받았을 때에는 다 통할텐데 여성이,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불편한 교육이었던 거다. 남성 위주의 교육이었으니까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어떤 분은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 시집을 안갔으니 불효녀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50대고 여자 분들도 50대니까 어머~ 하시는데 저희는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은 통했죠. 같은 나이 때니까. 저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귀농학교에서 농기계 교육을 한 번 했다. 4시간 정도. 거기서 여성 차별을 느껴봤다. 남자들은 잘 가르쳐주는데 저한테는 “00씨는 우선 배우기는 하세요. 남자들한테 시키세요. 조작법만 알고 있다고 시키세요.” 그것도 00시 농업기술센터 강사라는 분이... 남자들은 그냥 시키고 여자들에게는 “하실 거예요?” 물어본다. 그렇구나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구나. (사례 9. 37세. 기혼, 농업전업, 1년)
- 농업교육을 하면 제가 기혼이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남자들은 가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저도 교육받고 싶은데 애도 봐야 하고 집에 일도 가야하고. 남편이 먼저다.... 그러다보니 저는 계속 준비단계다. 그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기혼한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만일 트랙터를 배우는 날이라면 중간 중간 교육을 넣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적 자극을 주어야 그게 그나마 먹힌다. (사례 32. 35세. 기혼, 취업(농업농촌), 6년)

□ 시장

- 청년여성농업인 중에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마케팅과 관련한 역량이 뛰어나서 부모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마을 농업인들을 위한 가공, 판매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었음

- 부모님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온라인 판매 등과 함께 홍보물, 라벨 등 디자인을 직접 하다보니 주변 농가에서 디자인이나 스티커, 명함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다. 판매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전부 직거래로 판매 중인데 도매가나 경매가보다는 적당한 가격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례 12. 31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7년)
- 오미자청 가공을 위해 농수산대 지원사업으로 4천에 모아놓은 돈으로 시설을 올려서 가공공장을 세웠다.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부터 브랜드, 세무도,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게 어려웠다... 제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당시에 식초, 막걸리 교육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게 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공장을 지어서 조합원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사례 22. 28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7년)

- 이에 반해 부모기반이 없고 관련한 역량이 없는 영세한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산물 판매 방법이나 경로에 어려움을 겪음

- 사례 2는 도시에서 소농들의 작은 장터를 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농촌에 오니 그런 기회가 손에 꼽을 정도로,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판매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함.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이 되지만, 부모기반이 없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고(농지 임대차계약 어려움), 높은 출자금을 마련할 여력도 없음
- 조사 참여자들은 소농 품앗이나 여성 1인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사례 2), 농협이나 지자체가 주도해서 산지 조직화를 하고 소농의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일 필요성(사례 14), 농협 출자금 하향 조정(사례 26)을 제안함

- 감자를 조금씩 캐고 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어떻게 팔 지 모르겠다. 서울에서는 00간식마켓 신청해서 부스에 나가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여기에서는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친다... 농협 로컬푸드는 조합원이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품앗이나 조례 시스템이 정착화되어서 혼자 농사짓는 여성들을 모아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사례 2. 38세. 비혼, 농업전업, 4년)

- 농업은 판매도 잘 해야 하는데 농협은 소농은 받아주지 않는다...농협뿐만 아니라 산지조직화를 통해 소농이 클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14. 24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1년 6개월)
-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 출자금 수준이 너무 높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임대농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사례 26. 36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8년)

□ 네트워크(경제활동)

- 농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가공·체험 등 농업 다각화에 따라 브랜딩, 패키징 등 판매·마케팅 기술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농업역량 수준별로 멘토, 즉 전문가와의 연계, 교류가 중요함
- 네트워크(경제활동)와 관련해서는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주거지, 농지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영농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활동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본인의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반해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주거지 마련, 농지 구입,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자립 과정 자체가 고군분투이며, 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 또한 열악한 상황으로 이어짐
 - 특히 농촌 커뮤니티는 마을 이장과 중장년 세대가 핵심인데, 청년여성을 농업의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강함.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은 부모가 보호망, 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무연고 비혼인 경우는 농업 관련 정책·자원 정보에서 배제됨(사례 2, 23, 24, 33)
- 조사참여자들은 농업·농촌 정착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정착 초기에는 작목선정이나 농업기술,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체계(콜센터, 프로그램, 사람 등)이 필요하고(사례 4, 10, 19, 23), 멘토·멘티 제도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사례 19, 23). 또한 대부분의 멘토가 남성이기 때문에 청년여성농업인 롤모델로서 여성농업인 멘토가 활성화될 필요성 또한 제시함(사례 25)

- 청년 여성은 농촌 커뮤니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장님들이 무슨 공무원 이런 분들보다 입김이 세다. 그런 커뮤니티에서 배제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청년 여성이라고 생각된다. 농업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면 교육이나 대표자, 정보에서도 밀려난다. 이장님들한테 잘 보여야 일이 된다. 면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장님한테 이런 사업 진행되는데 필요한 사람 있나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사례 33. 25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 처음 5년 간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된건지 그런 것도 몰랐다. 해야 하나까 하고, 날씨가 바뀌니까 하고, 병이 오니까 하고... 동네에서 물어보면 도리어 오답이 나온다. 농약방에 가서 필요 이상의 약을 샀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첫 해에는 약값만 350만원이 들었다. 다음해 되니까 나머지는 필요없는 약들이어서 백만원이 들었다. 114나 민원실처럼 초보든 누구든 전화만 걸면 다 알려주는 그런 콜센터가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사례 10. 39세. 비혼, 농업전업, 12년)
- 초기 지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사전에 매칭을 해서 네트워크 같은 지원 체계. 가장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많은 시기에 편하게 묻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물어보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볼 수 있다... 멘토멘티를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한다. 농업, 체험, 가공 등 리스트업을 하고 처음 귀농했을 때 어느 부분이 맞는지 교육도 받아보고 체험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적성, 분야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 정착농은 경작만 강조한다. 농업과 연계해도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왜 작물만 키우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9년)
- 대부분의 멘토가 남성 중심이다. 실제 일은 부인(여성농업인)이 해도 멘토멘티는 남성 분이 한다. 청년 여성들이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성 멘토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사례 34. 37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3년)

- 선배 농업인 또는 선도 농업인과의 일대일 멘토멘티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할 수 있는 포괄 커뮤니티 구성 필요성도 제시됨
- 가공·체험 등 융복합 산업 분야에 있는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대농 중심의 남성 청년 농업인과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성들끼리 일하는 과정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 등이 있으므로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처음 제가 4H에 가입을 했을 때 여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한 게 아직까지 남성들의 농업은 대농이 많고 규모가 충분해서 생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이에 비해 여성의 농업은 초기에 크게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되어 움직임의 필요가 있다. 체험이나 가공과 같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여성의 섬세함을 강점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4H는 대농이 많고 대부분 후계농이다 보니 지역 유지에 가깝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산을 현금화해서 자산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이나 직거래 장터도 해보게 되긴 하지만 농업학습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패키지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거 소규모 포장해서 일만 늘어나고 돈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한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9년)
- 청년여성농업인 친구들과 가공으로 법인 만드는 것을 준비 중이다. 각자 다른 작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4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다가 무언가를 해보자 해서 시작했다. 여자들끼리의 언어 통하는 게 있다. 다 여중 여고를 나왔고 어렸을 때 학교 문화가 있고 딱딱 맞는 게 있다. 남자들은 ‘그래?’ 이러면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고 그러는 게 있고, ‘코랄색 할까?’ 우리가 흥에 겨워 하는 말을 남자들은 핀잔을 주거나 한다. 여자들끼리 설명을 안해줘도 알아듣는 문화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섬세하니까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면 서로가 상처를 안받는다. (사례 23. 37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7년)

4) 사회 요인: 문화, 가족, 돌봄, 건강·복지

□ 문화(성평등 문화)

- 농촌에 정착한 청년여성농업인 일부는 젊은 여성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변 어른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았고 여자라서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함. 청년여성농업인을 대하는 농촌 주민의 태도·인식은 부모기반 유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청년여성농업인의 혼인 상태, 자녀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농촌 내 부모의 지위가 낮거나, 비혼, 무연고, 청년여성농업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신, 비하,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임

- 젊은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사례 19, 29), 마을주민이나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강사 등이 청년여성농업인에 의한 성폭력·성추행이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한 청년여성농업인 당사자를 배제하는 분위기에서 불안감을 느낌(사례 17, 22, 25)
 - 농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사례 10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촌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인데, 여름 가뭄기에 밭에 물을 대는 작업을 마을 사람이 나오기 전인 새벽에 할 수밖에 없었음. 집안에 남성이 있으면 마을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사례 10, 28)
- 농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의 신체적·정신적 고단함을 낳게 되는데, 청년여성농업인은 개인적으로 맞대응을 하거나 본인의 명성을 쌓아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묵묵히 참는 방법을 택하기도 함

-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알게 돼서 신청했는데 잘 안된다. 면접볼 때 심사위원이 저에게만 농촌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다. 나는 이 곳에 산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옆에 남성들은 여기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팔찌를 빼야 하는 건지, 옷차림을 바꿔야 하는 건지 생각했다. (사례 29. 35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젊은 나이의 여자는 진짜 네가 하는 게 맞냐는 의심을 받는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관공서로 오라고 하거나, 별거 아닌 서류인데 오라고 한다.... 도시에 살면서 부모님이 계신 지방에 내려와 돈만 타 먹는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라고는 하지만,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을 하고... 일부러 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다. 다른 직군에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의심하고 진짜냐 아니냐를 시험하고 하지는 않지 않나. 농업에서만 이런 것 같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9년)
- 여자로서 그동안 나이대 상관없이 느껴지는 게 있다. 탐할려고 한다?. 남자분들이? 그런 게 너무 싫었다... 처음에는 동네 할아버지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생각했었는데 터치가 심해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조금 더 엉덩이로 내려온다던가. 할아버지한테 “이거 성추행이에요” 얘기는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장님네한테 이야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도 얘기하는데, “00씨가 미리 대처를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농담처럼 “할아버지가 기운이 좋으시네”, “아직 쌩쌩하시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쁜 거다. 여자들한테는... 예전에 신안 성폭행 사건 그런, 마을 사람들이 다 원래 주민들을 편들어주고 외지인은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17.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3년)

- 성추행 부분도 힘들다... 전에 농장에 가서 실습하면 농장 사장이 뒤에서 안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이 뽀뽀하려고 하는 등 해서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농촌이 이런 인식적인 부분에서 도시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참으면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는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센터 직원은 직급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나를 피한다는 느낌이 든다. 서류 줄 것이 있는데 사무실로 올라오지 말고 내려오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나 싶었다. (사례 22.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7년)
- 한창 폭염일 때 도랑이 하나니까 이걸 막아서 물을 대게 되는데, 낮에는 절대 못 대게 한다. 네가 하면 내가 못한다 이런 마인드다. 대는 순간 저 위에서 물을 막아버린다. 10년간 물을 낮에 퍼본 적이 없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고, 다들 샵 들고 나오실 때 되면 저는 끄고 들어간다. 집안에 아버지나 젊은 청년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사례 10. 39세, 비혼, 농업전업, 12년)

□ 가족

- 부모 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부모가 본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고 공사구분이나 적절한 보상없이 일을 시키고 생활을 통제해서 부모 자녀 간 갈등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나옴
 - 특히 후계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그동안 부모와 함께 농사 일을 해왔지만 부모가 딸에게는 농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듣게 되고 노동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와 더불어 결혼을 했을 경우 비농업인 배우자의 농업 참여를 부모님이 반대함. 부모들은 아들이 비농업 배우자와 함께 집안의 농사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딸의 경우는 출가로 생각하고 외부인이 집안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동안 집안 농사를 위해 헌신해왔는데 결혼 후 갑자기 자신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임
- 이들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부모와 농사를 함께 짓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요구하고, 결혼 후 친정 부모와 농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가족경영협약’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 5남매고 아버지가 매우 가부장적이신데 “여기 네 꺼 없으니 빨리 나가라.” 이런 말을 매일 하신다. “넌 시집이나 가” 이런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다.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챙기고 나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부모와의 갈등이 진행 중이다.... 기관에서 승계농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도 있는데 실제 그런 갈등이 있는 집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승계농에게 부모는 무조건 갑이다. 저도 교육 받으러 갔지만 해결이라는 것이 완전히 독립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업농이 부럽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퇴근이 없다. 눈뜨고 일하고 눈감을 때까지 일한다. 진짜 한국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7년을 영농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진로를 틀기도 두렵다. (사례 7. 29세. 비혼, 농업전업, 7년)
- 남자가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제가 신랑을 결혼을 해서 신랑을 같이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다... 우리 가족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 제가 외동딸이 아니고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는 자꾸 안해야 될 짓을 하는 사람인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한건가? 이 생각이 들다가도 참 어렵다... 일본에는 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다. 가족끼리 하는 농가가 소농이 많고 승계농이 많다보니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약을 한다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약서를 써서 한다든지, 우리처럼 용돈이나 월급제를 준다든지. 00기술원인가 교육이 있어서 배우러 갔더니 앞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그 얘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다... 그런 게 저희는 굉장히 알고 싶다. 계약서 쓰고 일한 만큼 돈을 줄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건지 사례들을 알려주면 참고하면서 유지하고 싶다. (사례 16. 33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7년)

□ 돌봄

- 조사 참여자 중 기혼 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은 임신·출산 시기 농가도우미 사업의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를 함. 사례 32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농가도우미 사업이 메꿔주었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홍보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함
-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돌봄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농업인 부부는 도시의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좀 더 향상된 수준의 시설·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사례 9, 15, 16)

- 좋았던 것은 출산하기까지 출산 전후 3개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배불러서 가지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 사업도 주변 지인이 알려줘서 하게 됐다. (사례 32. 35세. 기혼, 취업(농업농촌), 6년)
- 농번기는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농촌은 돌봄서비스가 너무 안되어 있다. 어린이집도 4시에 하원시킨다. 서울은 맞벌이하면 7-8시까지 봐준다... 농촌에 일하는 엄마들 많은데, 농번기에 나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만 두고 와야 하고 그 인건비를 줘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엄마들 사이에 너무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가는 곳으로 알려져있다...그게 나쁜 건 아닌데 처음 귀농해서 마음이 좀 그랬다.... 서울에서는 저녁돌봄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니까 바빠서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집에 없어서 이런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말기기가 불편했다... 초등학교는 4학년 되면 저녁 돌봄을 안해준다고 들었다...학원도 하나 밖에 없다. 초중 9학년을 다 보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모가 해야 하는 거다. (사례 15. 34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3년)
- 저도 당장 아기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저는 일을 하고 싶는데 찾아야 하고. 시골에서도 마음놓고 키우기가 어려운 거다. 예전에 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오스트리아 마을을 친환경적으로 가꿔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킨다. 프리미엄 유치원처럼. 더 친환경적으로 더 좋게. 농촌마을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가꿔주는데 여기는 거꾸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도시에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한다고. (사례 16. 33세. 기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7년)

□ 건강·복지

- 건강과 관련해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들녘 화장실, 산부인과, 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 특히 밭에서 일을 하는 경우 화장실이 여의치 않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방광염, 질염 등 질병이 발생함. 농사 일이 바쁜 상황에서 하루 시간을 내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어려워 질병을 만성화 시키기도 함
 - 농촌 지역 산부인과 의료의 수준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도 높음

- 교육·문화·복지 이런 건 솔직히 다 포기하고 들어온 거다. 그런데 병원은 진짜 제발...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게 없는 건 당연하고, 산부인과 조차도 솔직히 평판이 중요한데 최악인 곳이 대부분이다... 밭일을 쪼그려서 많이 하면 화장실

을 밭에서 가고 싶을 때 바로 가기 어렵다보니 방광염에 걸리기도 쉽고, 질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바로 병원에 가야 치료가 되는데 그런 치료를 해줄 여건의 병원이 없다. (사례 28. 29세. 비혼, 겸업(타산업), 4년 6개월)

- 더운 여름에 농사 지으면서 생리대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탐폰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게 질염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농사 짓다가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괜찮을 것 같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체크할 때 여성질환 같은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사례 26. 36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8년)

라.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한 의견

1) 토지 없이 귀촌하는 청년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청년여성이 부모, 농지, 돈, 결혼 없이 농촌에 홀로 귀농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함. 농촌에는 청년여성농업인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청년여성 또한 많아져야 하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농촌은 청년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 단순하게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하는지, 아니면 농촌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걱정없이 내려와서 이것 저것 체험이나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재미를 붙이는 사람은 정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19. 33세. 비혼, 겸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9년)
- 토지 없이 귀촌하는 여성을 농업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농촌에서 농사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00씨가 체류형 귀농귀촌센터를 거쳐 마을 협동조합에서 역량을 쌓아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관심있는 여성이 있다면 인턴쉽처럼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삶을 공유하고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례 31. 35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부모기반 있음, 8년)
- 청년여성이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 불편이 더욱 큰 농촌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농업 생활 외에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딱 막힌 취업시장에서 눈을 돌릴만한 매력적인 경제활동의 한 방식으

로 농업·농촌 영역을 알린다면 그건 좋을 것 같다. 단순형태의 1차 농업 종사 외에 청년여성에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체험형 농장 근무, 농협, 읍면 사무소, 기술센터 근무 등을 많이 알리고, 체험형 농장 농촌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격증이 있어야 우대 채용조건이므로 그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거나 손해평가사, 유기농업기사 등이 되기 위한 단계로 귀농을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례 33. 25세. 비혼, 취업(농업농촌))

2)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과 관련한 의견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 정착금 지원정책은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데 유인요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농촌 정착 현실에서 힘겨움이 가중되기도 함
 - 융자금 상환 기한의 연장, 정착금 사용 방법의 개선,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제한 개선 등 요구가 있었음
 - 또한 정착금 정책이 영농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농업과 관련한 다른 직군들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정책 홍보가 너무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농업·농촌 정착 현실을 더욱 힘들게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청년농업인 정책 정보 제공·영농활동 상담 창구 필요
 -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 정책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 청년들이 정책을 확인하고 문의할 창구, 정착금과 주거, 자립에 도움되는 정보라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 114나 민원실처럼 영농활동에 관한 정보를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 요구 의견이 있음
 - 전국 지자체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정착금·주거·자립) 통합하여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알리미 센터 운영 등 모색 필요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1) 농업·농촌 비전과 탈농업

- 청년여성농업인이 말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은 진폭이 큰 편임. “끈질기게 견뎌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은 농촌 정착은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그 책임이 청년여성농업인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의 탈농업 사유는 농업소득 부족으로 인한 청착농 지원금 상환,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마련 이유, 주거지 미확보, 농촌 마을공동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 등임
- “지금이 비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라는 표현처럼 현재 청년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농업·농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공의 방식으로 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농업·농촌 관심과 시작 계기

-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모의 건강 문제나 집안의 경제적 위기,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별도의 탐색기나 준비계획기가 없이 바로 농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음. 상황적 요인도 있지만, 본인이 ‘집안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계산과 감각이 농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데 농업을 통한 소득활동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선택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부모기반이 없이 무연고로 농촌에 이주하여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은 건강·먹거리·생태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 전용 웨어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주거지 여건이 선택에 영향을 미침

3) 농업·농촌 정착 경험과 애로사항

가) 자립 요인: 주거, 정착금, 네트워크(사회활동)

- 농업·농촌 정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자립요인은 주거, 정착금,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거지 마련 어려움은 부모기반이 없는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의 답변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데, 주거지 불안정성과 안전 위협은 준비계획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등 정착과정 전 단계에서 나타남

- 정착금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생활자금을 말함.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면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한 통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임. 해당 사업에 의한 정착금 지원은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진입 선택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과정을 급격하게 축소시켜 정착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경험되기도 함. 무연고 비혼 여성으로 농업은 시작했지만, 영세한 규모로 판로 확보도 어렵고, 농업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가 있음
- 농업·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여성농업인은 정책 정보의 접근에서도 배제되고 있음. 또한 청년여성농업인은 청년여성에 대한 편견, 힘든 농업노동을 하면서 혼자라는 고립감, 농업인으로서 회의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는데, 본인과 비슷한 경로에 있는 선배, 또래 청년여성농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위안을 얻고, 농업인으로서 전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됨

나) 자본 요인: 농지, 자금, 기계

- 영농활동을 위한 자본요인은 농지, 경영자금, 기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농지를 구하는 문제는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임. 특히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에서 농지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을,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차한 농지가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 역량과 농작업 여건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함
- 부모기반이 없이 농사를 시작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모아놓은 초기 자금으로 농지를 구했지만, 농지 기반시설 마련, 농자재 구입, 농작업 비용 등 상당한 영농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음. 또한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농업을 통한 수익을 내기 위해 정책 지원(융자)을 받아 농업 규모를 키운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몇 억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음.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을 통하여 자금 융자를 받았지만 농업 수익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은 '탈농업'으로 이어지기도 함
- 농기계 보유와 사용 정도는 부모기반, 영농경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농기계를 이용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농기계 농작업 비용 부담이 컸음. 농기계 사용 부분에서는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여성 1인 단독경영의 경우 농기계 농작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다) 기술 요인: 기술, 노동부담, 시장, 네트워크(경제활동)

-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영농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이며 교육을 통하여 본인 작목과 관련한 선배 농업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음
- IT를 활용한 브랜딩, 마케팅 등 분야에서 단계별·수준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귀농귀촌교육 등 준비계획 단계의 교육은 예비/초보 농업인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진행될 필요성을 지적함
- 여성농업인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청년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함. 강사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 교육 실습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남성(남편) 중심의 교육 참여가 당연시 여겨지면서 기혼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한받음, 여성농업인 강사의 성평등 의식 수준 개선, 여성농업인 강사 발굴, 청년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판매, 마케팅과 관련한 역량이 뛰어난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농업인을 위한 가공, 농산물 판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반해 부모기반이 없고 관련한 역량이 없는 영세한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밭에서 재배한 소량의 농산물 판매 방법이나 경로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소농 품앗이나 여성 1인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함
- 네트워크(경제활동)와 관련해서는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 부모기반이 있는 경우는 주거지, 농지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영농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활동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본인의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경향을 보임. 이에 반해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성격으로 극복하지 않는 경우’는 주거지 마련, 농지 구입,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자립 과정 자체가 고군분투이며, 농업 관련 교육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 또한 열악한 상황으로 이어짐
- 조사참여자들은 농업·농촌 정착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형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정착 초기에는 작목선정이나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체계(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멘토·멘티 제도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멘토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멘토가 활성화될 필요성 또한 제시함

라) 사회 요인: 문화, 가족, 돌봄, 건강

- 농촌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 전문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음. 농촌 내 부모의 지위가 낮거나, 비혼, 무연고, 청년여성농업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신, 비하,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임.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임. 마을주민, 농업교육 강사, 공무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 문화활동 강화 등 요구도가 높음
- 가족과 관련한 정착 장애요인은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의 고충과 관련이 있음. 부모가 본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고 공사구분이나 적절한 보상없이 일을 시키고 생활을 통제하는 부분, 딸(기혼/비혼)을 농업 승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 등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함. 부모-자녀 간 가족경영협약 등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체감도가 낮고,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낮음. 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큼
- 기혼 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은 농촌 지역에서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하며, 시설·서비스의 수준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힘
- 건강과 관련해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들녘 화장실, 산부인과, 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4)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한 의견

가) 토지 없이 귀촌하는 청년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조사 참여자들은 청년여성이 부모, 농지, 돈, 결혼 없이 농촌에 홀로 귀농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함. 농업·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여성농업인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여성 또한 많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안함

나)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과 관련한 의견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청착농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
 - 청착농 지원정책은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데 유인요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농업·농촌 정착 현실에서 힘겨움이 가중되기도 함

- 융자금 상환 기한의 연장, 정착금 사용 방법의 개선,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제한 개선 등 요구가 있었음
 - 또한 정착농 정책이 영농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농업과 관련한 다른 직군들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정책 홍보가 너무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농업·농촌 정착 현실을 더욱 힘들게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착농 지원정책은 농업·농촌 유입은 촉진하지만 농업·농촌 준비계획 단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음. 신중한 귀농설계 가능하도록 정책을 홍보하고, 1차 농업 이외에 농업농촌 관련한 다른 일을 하면서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정책 정보 제공 필요
-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 정책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 114나 민원실처럼 정책정보 콜센터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청년들이 정책을 확인하고 문의할 창구, 정착금과 주거, 자립에 도움되는 정보라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 요구가 있음

나. 정책적 시사점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진입에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과 같은 직업적 요인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주의적인 삶 등에 대한 지향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농업·농촌 정착과정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함. “지금에 비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 라는 표현처럼 현재 청년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농업·농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공의 방식으로 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청년여성농업인 면접조사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7> 청년여성농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용 웨어하우스 1년 거주만 가능, 지역 농업과 연계 활동 낮음 · 장기귀농교육시 농장주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평 흙집 거주, 생활불편, 수리비용, 보수문제 · 귀농인의 집 1년 거주. 비혼여성 거주 거부 · 면소재지에 주택 임대, 안전 문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웨어하우스, 정책정보, 지역사회와 연계 지원 · 흥성 젊은협업농장: 단체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여 제공, 주택관리는 단체에서 수행 · 청년여성 안전, 편의성 고려한 웨어하우스,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 지원 강화
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금 신청 준비 중. 기초생활수급 신청(추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혼 청년여성 정착경로 관심, 관리, 일자리 연계 필요
네트워킹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음 · 청년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 임파워하는 여성농업인 롤모델이 있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으로 고립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 위안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한 여성농업인 사례 공유, 만날 수 있는 자리 필요. 혼자가기 어려운 인식을 가지게 해주는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인업자가 체계적으로 정착 설계해 줌 · 선배 여성농업인 롤모델과의 만남을 통한 임파워 기회 필요 · 청년여성농업인 동료 커뮤니티 활성화 · 귀농희망자의 재능, 전공을 활용한 일자리나 네트워킹 조성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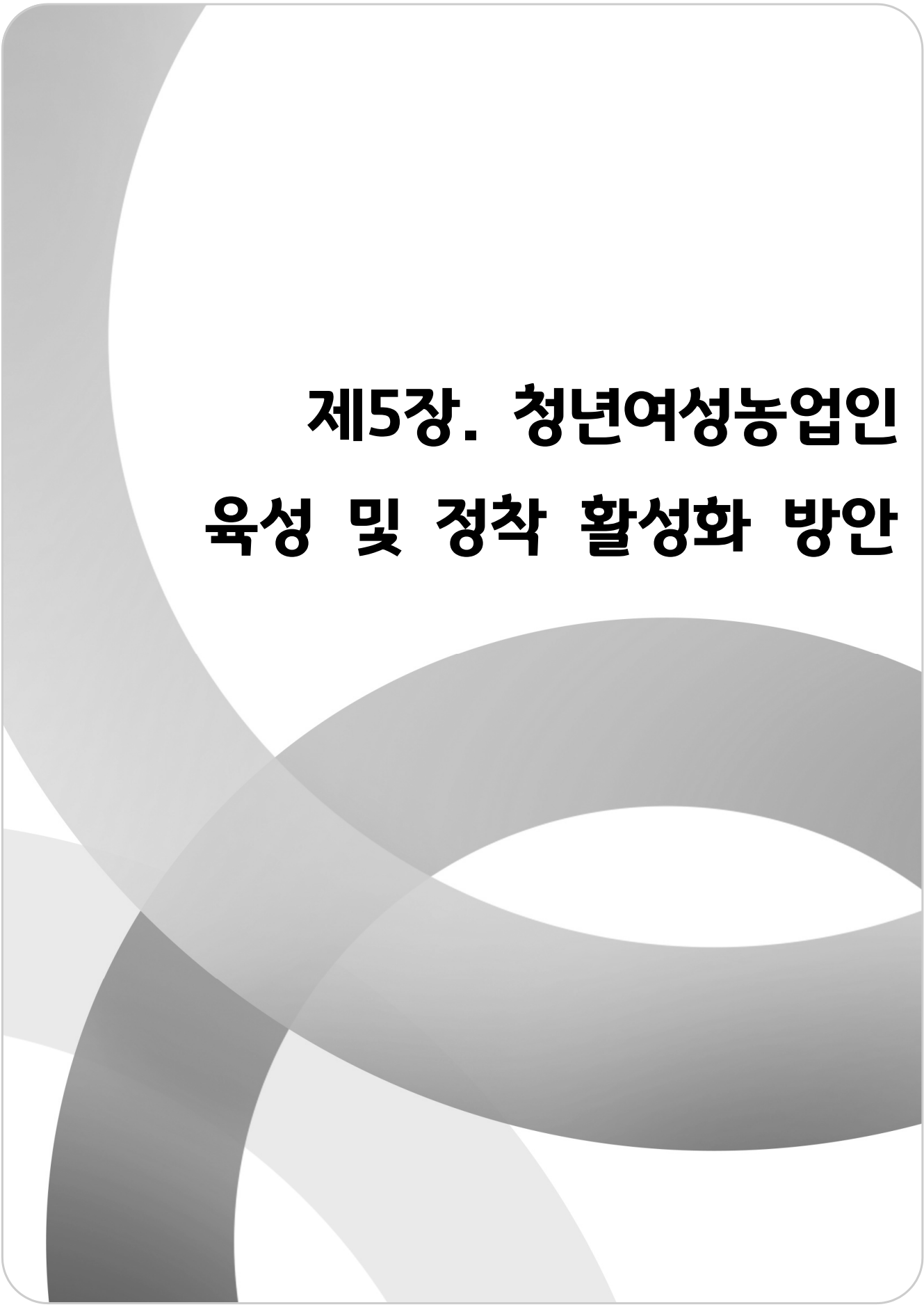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쫓는 상황. 농업·농촌, 자선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향. 정서적 힘들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계약서 써주지 않음 · 청년들이 농지를 구하면 농지를 버린다는 이유로 빌려주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도 안들어가 는 농지로 유명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포기하고 탈농업한 사람(남성)이 쓰던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마다 농지를 옮겼음 ·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땅이 받농사 짓는 조건. 기계 사용이 가능한 동네 청년남성 농업인이 농사를 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여성 귀농인을 4대에 가입시키고 같이 활동하면서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경영시 신체적, 체력적 한계,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도 해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트랙터 여성 신체사이즈로 조정하는 기능 필요 · 방제복 남성 사이즈로 일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도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서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이 무료로 해주었는데 부담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성격으로 극복함. 싹싹하게 부탁하거나, 기계가 도움을 받음 · 청년여성농업인 단독경영시 농기계 농작업 대행 지원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준비기	시작시행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시작시행기	지속발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 기혼 여성농업인의 남편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 어려움 · 트랙터 빌려서 일하는데만 몇백만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기계·농기구 보조사업, 수요에 맞지 않고 보조비용 낮음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을 내기 위해 영농규모를 키우게 됨.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음 · 수익은 나지 않고, 정착지원금을 갚기 위해 탈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놓은 돈으로 농지 임대, 소득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음(농작업 대행, 전기, 관정 등) · 남성들 속도를 따라기 위해 인력을 쓸 수밖에 없음. 수익이 없음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교육시 상공한 농업인 방문, 현실과 동떨어진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으로 농업 전문교육 여려가 지 이수, 전국 수준의 전문가, 네트워킹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포털사이트에 등급을 위한 스텝업교육. 레벨별 교육이 있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장기교육 초보 농부에게 맞지 않는 부분 있었음. 농기계를 바로 살 수 없고 가공도 바로 적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문가 연계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참여 확대(강사 인식 개선) · 기혼여성농업인(공동경영주) 교육 참여 지원하도록 청년남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지속발전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시작실행기	준비기	시작실행기			
문화 복지			여성농업인의 관심사 이해 못 하고 편견을 줌 · 멘토멘티제도 다양하게 운영 되었으면 함. 농업, 체험, 가공 등	에 과수업, 홈페이지 들어갈 여력이 없고, 귀농귀촌센터는 인맥을 통해 빨리 신청하려는 수 준임	기 부담스러움	중, 관심사가 비슷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 청년여성농업인 농업특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확대 · 여성농업인 멘토 확대 · 다양한 분야 멘토멘티제도 운영(농업, 가공, 체험 등)	
문화	·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 · 정착농 면접에서 농촌에 계속 살 것인지 질문받음. 같이 면접에 참여한 청년남성농업인보다 더 오래 농촌에 살았는데, 본인만 질문을 받음 · 비혼, 무연고, 청년여성, 여성가구원만 있는 가구 무시, 홀대, 괴롭힘 심각함. 4H 남성청년들이 다녀가고 나서 괴롭힘 중단됨 · 청년 남성들도 감수성 낮음. 성인지 교육 필요.		· 성폭력·성추행이 빈번하고(마을주민, 농업인단체, 공무원, 교육 강사 등), 마을주민을 옹호하는 분위기, 문제를 제기한 청년여성 배제 분위기 · 결혼상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함 · 농업도 하지만, 농촌마을 브랜드 관련 일도 있음. 마을 주민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심	· 개인적인 역량으로 극복. 방송 출연 등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부담한 상황에 당당하게 맞섬 · 농업인처럼 보이려고 허름하게 입고 공무원을 만남 · 여성농업인의 기여, 역할 인정하는 교육을 농업인 교육에서 실시했으면 함 · 농촌 성평등 인식 개선, 청년 남성농업인 성인지 교육 참여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마련 필요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시작실행기	지속발전기	
가족	부모기반 있음 · 부모가 청년여성농업인을 하대·무시. 공시구분, 적절한 보상없이 일을 시키고 생활을 통제함. 퇴근이 없음. · 여기 네까 없으니까 나가라, 여자는 시집가면 끝난다는 말씀을 하심 · 여성의 경우 비농업인과 결혼했을 때 함께 농사를 짓거나, 딸에게 승계하는 것에 부정적임. 가족 경영협약 교육이 개설된 곳이 없음						· 가족경영협약 체결 확대, 부모 세대 참여 유도
돌봄	부모기반 없음 · 여성농업인이 임신·출산시 노동력 손실, 농기도우미 지원이 도움되었음. 정책 알지 못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됨 · 방과 후 아동돌봄. 시설,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곳이 있었으면 함.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저소득층이 보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홍보 확대 · 농촌보육시설/서비스 수준 개선
건강·복지	부모기반 없음 · 산부인과가 필요함. 한의원,물리치료 같은 곳만 있고 가정의학과에서 모두 진료를 받으라고 함. 서비스 수준도 낮음 · 밭에서 일을 할 때 화장실이 없어 질병으로 이어짐. 농사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음 · (비농업) 농촌은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음. 삶의 질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요인임						· 찾아가는 산부인과, 들녘 화장실, 건강검진 등 · 공유차량 운영

구분	농업·농촌 정착 경험 및 정착 장애요인						개인적인 극복방법 및 정책적 시사점
	부모기반 있음			부모기반 없음			
	준비기	시작시행기	지속발전기	준비기	시작시행기	지속발전기	
토지 없이 귀촌하는 청년여성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은 청년여성이 부모, 농지, 돈, 결혼 없이 농촌에 홀로 귀농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함 · 농촌에는 청년여성농업인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여성 또한 많아져야 하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촌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지원
그 외 청년농 업인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상환 기한의 연장, 정착금 사용 방법의 개선,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제한 개선 등 요구 · 농업과 관련한 다른 직군들로 확장될 필요성 · 정책 홍보가 너무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농업·농촌 정착 현실이 험겨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한 귀농설계 가능하도록 정책 홍보 · 1차 산업 외에 농업·농촌 관련 직군 확대
정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이 있고 차이가 있음 · 지역의 공무원들을 통해 정책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보·상담 센터 운영 · 농촌보육시설/서비스 수준 개선



제5장.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제5장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가. 청년여성농업인 유형과 여건을 고려한 밀착형 지원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여성농업인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소수이며, 청년남성농업인과는 다른 농업·농촌을 경험하며 정착에 고군분투하고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정착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적이며, 부모기반,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부모기반이 없는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자립 자체가 어렵고 역량강화 기회 부족, 준비계획단계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취약 집단임. 부모기반이 있고 농업활동에 주력하는 청년여성농업인은 고된 농업노동, 부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감, 농업인으로서의 회의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내에서 농업인으로써 정당한 위치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기혼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업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부담을 공공의 방식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함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정책은 청년남성농업인과는 다른 청년여성농업인의 상이한 여건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유형별, 단계별로 정착 장애요인의 해결을 밀착하여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¹²⁾

나.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경험은 부모기반 유무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 체력적인 한계, 농업·농촌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 등 요인들에 영향을 받음. 하지만 기존 청년농업인 정책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실태에 대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청년농업인 정책은 청년남성농업인과는 다른 청년여성농업인의 상이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는 성인지 관점에 기반하여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농촌 전반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청년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12) 이진철(2020)은 강원도 청년농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에서 '사람 중심의 청년농정책'으로의 전환 속에 '청년농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함. 여기에서 관리는 "인재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살피는 '후견(sponsor)' 또는 '케어(care)'의 성격을 포함"하는 의미임. 청년여성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과 사람 중심의 관점을 접속한 청년농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농촌 청년여성으로의 정책대상 확대

- 농업·농촌 유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영농활동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 준비계획 단계를 성급하게 축소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모색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여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청년여성들의 정책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다변화된 필요가 있음

2. 정책 과제

-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실태 분석,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방안은 정착 지원 인프라 조성, 농촌 생활여건 개선(주거·보육·복지),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세대 간 교류·화합,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정착, 정책·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등 6개 분야 14개 과제 제언으로 정리됨

<표 5-1> 분야별 정책 과제 요약

분 야	정책 과제
가. 정착 지원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사업: 실태 파악 및 DB 관리 -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 -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및 개발 -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나. 농촌 생활여건 개선 (주거·보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청년여성 안심주택 지원 ○ 농촌지역 이동돌봄시설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 정책 강화
다. 농업·농촌 취창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자립 및 영농설계 지원 강화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 농산물 판매 기회 마련 ○ 청년여성농업인 창업자 지원 사업 운영 ○ 농촌 청년여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책 활성화
라. 세대 간 교류·화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대 ○ 청년여성농업인 세대공감 지역사회 활동 추진
마.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귀농귀촌 관련 공무원, 전문가, 멘토 등 성인지 교육 강화 ○ 청년농업인단체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실천 문화활동 실시 ○ 농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바. 정책·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청년농업인센터 운영

가. 정착 지원 인프라 조성

1)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플랫폼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할 정도의 청년여성농업인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소수이며, 농업·농촌 영역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자 농촌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임
-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청년, 여성, 비혼, 무연고 등 특성들이 교차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형별,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존 청년농업인 정책이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실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 의제에 집중하여 이들의 농업·농촌 정착실태를 파악하고 과정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이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플랫폼 신설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및 육성을 전담하는 지원하는 역할
- 여성농업인단체, 청년여성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과제 설정 및 추진 필요
- 주요 기능 및 사업

① 기반 사업

- 청년여성농업인 실태 및 현황 조사
- 청년여성농업인 DB 관리, 패널 조사

②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

- 청년여성농업인 지역별 멘토그룹 구성 및 운영
- 청년여성농업인 지역별/전국단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별 정책 워크숍, 선배여성농업인과 교류, 세미나, 집담회 등 개최)

- 청년여성농업인 커뮤니티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실시
(농업·농촌 정착, 영농기술 학습, 취창업, 농촌 문화콘텐츠 제작 등 분야)
 - ③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및 개발
 - 청년농업인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 점검 및 평가
 - 청년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연구, 사업
 - ④ 유관 기관·단체 협력 네트워크
 - 중앙정부·지자체 농업·농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 청년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기반 및 실행 성숙도, 지역 여성농업인단체 공감대 형성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과 사업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주관으로 운영, 다만, 청년여성농업인 전국/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참고사례

- 독일 젊은 농촌 여성 네트워크 `Junge LandFrauen(Young Rural Woman)'구축 (3장. 참조)
 - 독일농촌여성협회(Deutsche LandFrauenverband)는 젊은 농촌 여성에 집중하여 이들의 희망과 필요를 정치적인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확산하고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함
 - 2017년 프로젝트 초안을 작성하고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진행, 2017년~2019년까지 3년여 동안 전국단위, 지역 단위에서 농촌 청년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 2019년에는 3년 동안의 사업 성과(농촌 청년여성의 대표성, 농촌에서의 삶과 전망 등 지역별 의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 9월4일~5일까지 베를린에서 ‘젊은 농촌여성의 디지털 참여 강화’를 주제로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고, 분과 세미나에서는 젊은 농촌 여성 대표성 강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젊은 농촌여성에게 관한 홍보 확대 등이 논의되었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젊은 농촌여성 그룹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6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독일 농촌 여성 협회 홈페이지(<http://www.landfrauen.info>))

- 강원도 청년농 전담기구 신설(안)
 - 이진철(2020)은 강원도 신농정기획단 보고서에서 청년농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민관협치 중간지원조직으로 ‘청년농 전담기구’를 제안함.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주체별 역할이 있지만 교육에서 영농활동, 지역 적응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임
 - 청년농 전담기구의 기능과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기능	사업명	비고
조사	청년농 실태 조사	도 조례 및 '후계청년농어업인법' 7조
	청년농 DB 관리	청년농 개인, 단체, 협력기관 등
모니터링	청년농 육성·지원사업 성과 관리	유형별 관리방안 수립, 사업평가 등
정책지원·홍보	시군 청년농정책 활성화 지원	지역별 정책 워크숍 및 컨설팅
	청년농 육성주체 활성화 지원	기술원, 농협, 농촌공사 등
	농고·농대 활성화 지원	학교와 농업농촌 현장 연계에 초점
	청년농 정책포럼	포럼 연속기획 및 대외 홍보
교육	청년농 입문자 교육 사업	농업·농촌 이해를 돕는 인문아카데미
	청년동 컨설팅 개선 및 컨설턴트 교육	개별 및 유형별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
별도사업	청년농 영농·일자리 협업 사업	권역별 청년농지원 민간협업사업 공모
	청년농 정책수요 반영사업	청년농 정책 아이디어 수렴과 기획

(자료: 이진철, 2020:19-28)

나. 농촌생활여건 개선(주거·보육·복지)

□ 배경 및 필요성

- 비혼, 무연고 청년여성농업인은 주거지 불안정성과 안전 위협 문제가 커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음. 또한 여성들을 위한 임시 주거지 확보는 청년여성농업인 농촌 유입의 핵심 요인임
- 기혼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영유아·아동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영유아 보육 및 아동 돌봄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가 높음
- 건강과 관련해서 청년여성농업인은 발농사 비중이 높는데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산부인과, 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세부 추진과제

- 귀농귀촌 청년여성 안심주택 지원
 - 청년여성 주거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 (*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 1인가구 우선 순위)
 - 유형별로 거주 기간, 임대료 부담 비용 등 설계(농촌 살아가기 등을 위한 임시주거, 귀농귀촌 준비 및 자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년 거주 등)

- 안전과 편의성을 위하여 읍면 소재지에 마련하고, 지역 내 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지자체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 지역활동·일자리 등 지원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참고사례

□ 홍성군 ‘안전주택 임대사업’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홍성으로 귀농귀촌하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셰어하우스를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 귀농귀촌에 관심은 많지만, 도시에 비해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임. 1년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귀농귀촌이 본인과 맞는지 생각해보는 계기 마련의 의미도 있음(2021년 현재 사업 종료됨)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2018.5.2. “집 없어도 괜찮아” 귀농·귀촌녀를 위한 셰어하우스 눈길)

○ 농촌지역 아동돌봄시설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농촌지역 영유아 돌봄, 초등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농촌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되 시설·서비스 수준 제고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 정책 강화

- 들녘화장실 운영 확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확대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항목에 산부인과 항목 추가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다. 농업·농촌 취창업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여성농업인은 부모기반, 연고지, 혼인상태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영농 활동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부모기반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은 주거지, 농지, 정착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전문교육과 네트워크 확장이 보다 용이한 반면, 부모기반이 없는 비혼 청년여성농업인은 자립 과정 자체가 힘들고 이로 인해 전문역량 강화나 네트워크 형성 단계로 나가지 못함
- 영농 분야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청년여성농업인 유형별, 단계별 지원이 요구됨

□ 세부 추진과제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자립 및 영농설계 지원 강화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정보 관리
(지자체 귀농귀촌·청년농업인 담당: 신규/예비 청년농업인 성별 통계 구축)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별 여건을 고려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영농설계 컨설팅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의 준비계획 단계 지원 강화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 이주 초기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 정보 제공, 보호 울타리 등 안내자 매칭
 - 지역 내 선배/또래 여성농업인을 안내자로 결연
(ex. 4H단체 공동사업으로 추진: 지역활동, 정착농 지원사업 준비, 면접동행 등)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 농산물 판매 기회 마련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작은 장터사업 활성화
- 농협·지자체 등 영세농 농산물 판매 지원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의 판로 지원, 선배 농업인과의 교류 기회로 활용
- * 예시. ‘농부시장 마르쉐’와 같은 도시형 작은 장터를 온/오프 환경에서 확대하고, 소농 청년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참고사례

□ 농부시장 마르쉐@

- 마르쉐@는 ‘장터, 시장’이라는 뜻이며, 2012년 10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처음 시작했고, ‘사람, 관계, 대화가 있는 시장’을 지향함.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나와 자신들이 기른 작물을 판매한다는 점임. 월 4회, 장소는 혜화, 성수동, 합정동 등에서 열리고 있음.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자신과 자신의 생산물 소개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되면 시장 투어, 파일럿 참여를 통해 정식 출점자로 확정됨. 농업인뿐 아니라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참여해 상생하는 효과가 있으며, 출점자들은 단지 생산자가 아니라 매년 2회 있는 전체 회의에 참석해 마르쉐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함

(자료: 농부시장 마르쉐 홈페이지, <http://www.marcheat.net>)

- 청년여성농업인 창업자 지원 사업 운영
 - 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비중이 높은 청년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성
 - 세무, 디자인, 마케팅 등 융복합산업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공유 워크숍
 - 선배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조언/지원 제공
 -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추진부서: 농식품부

- 농촌 청년여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책 활성화
 -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 경험·단기 체험을 축적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농업·농촌 분야 창의적인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기존 농촌 취업 사업에 청년여성 참여 현황 모니터링
 - 지역 내 청년여성농업인, 농촌청년여성 등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추진부서: 농식품부

라. 세대 간 교류·화합

□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여성농업인은 자식 세대이고 여성(딸)이라는 이유로 직업인으로서의 인정, 노동에 대한 보상, 농업 승계 여부, 혼인 후 공동경영 지속 등 여러 사안에서 부모세대와 갈등을 경험함
- 또한 가부장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이 적응하고 정착하는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음. 청년여성농업인은 지역 내 단체 가입률이 높지 않아 도움받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결망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청년여성농업인과 부모세대를 비롯한 농촌 기성세대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자녀 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착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세부 추진과제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대

- 부모와 딸의 관계, 혼인 이후의 변화 등 청년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사례를 포함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 가족공동경영협약 전문강사 양성(농촌 성평등 강사 보수교육을 통한 활용)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 실시 확대
- 농업인 대상 교육에 가족경영협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세대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 추진부서: 농진청, 지자체

○ 청년여성농업인 세대공감 지역사회 활동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과 농촌 주민, 선배 농업인이 함께 하는 교류·협업 활동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이 영농현장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개선활동, 농업·농촌 특성을 반영한 문화사업, 고령 여성농업인의 지혜 전승 기록단 등
- 청년여성농업인과 농촌주민, 선배농업인이 한 팀으로 활동 수행
- 추진부서: 농식품부, 지자체

※ 참고사례

□ 서울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 시니어를 대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그 중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 아이디어에 관심있는 청년을 모집하여 한 팀을 이루어 실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500자 내외의 간단한 아이디어 서술만 받은 후, 청년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시니어와 협업 파트너로 참여함. 10주간의 실행 기간이 주어지며, 두 차례 자문단 멘토링을 받아 결과물을 완성해감. 구두장인 구두기술로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제작, 세대공감을 위한 팟캐스트,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보드게임 개발 등 활동이 진행되었음. 2013년 시작하여 총 4회를 개최함(희망제작소, 2016; 최선주, 2020:15 재인용)

□ 충남여성포럼 ‘촌(村)을 입다’ 패션쇼.

- 충남여성포럼 농촌환경분과 주관으로 ‘촌(村)을 입다’ 패션쇼를 개최. 농촌여성 20여명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했고 다문화 여성, 충남도립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모델이 참여함. 농촌을 터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삶을 보여주는 ‘논두렁패션쇼’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받음. 충청남도의 2018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농촌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됨(태희원 외, 2020)

마.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정착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사회와 영농현장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청년여성농업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대우, 언어적·신체적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여성농업인 정체성에 대한 불신 등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농업·농촌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실질적으로 청년여성농업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농업인으로서 역량 강화, 정책 자원과의 접근성 등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정착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농촌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착을 조력하는 주요 주체인 농정 분야 공무원, 전문가·멘토, 관련 단체 등의 성인지 능력 향상이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 청년농·귀농귀촌 관련 공무원, 전문가, 멘토 등 성인지 교육 강화
 - 성인지 관점에서 농업·농촌정책 추진역량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여와 역할에 대한 이해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과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 능력 제고
 - 추진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청년농업인단체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실천 문화활동 실시
 - 청년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그 외 주도적인 방식의 기획 활동 실시(세미나, 집담회, 토론회 등)
 - 도 단위 청년농업인단체 4H 공동사업으로 추진(기초 단위까지 확산)
 - 추진부서: 농진청, 지자체
- 농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농촌지역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발생 시 대처방법 매뉴얼
 - 농촌의 가부장적 유교문화, 고령화 등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추진부서: 농식품부

바. 정책 · 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 관련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부족, 농업인 간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책 정보, 영농활동 팁 등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청년여성농업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영농활동과 관련해 쉽게 묻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에 관한 요구도가 높음

□ 세부 추진과제

- 온라인 청년농업인센터 운영
 - 전국·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사업을 집적한 사이트 운영
(ex.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정보활용 홍보, 미흡한 부분 개선)
 - 작목별, 영농수준별 농업 관련 상담, 정책 정보를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
 - 추진부서: 농식품부

※ 참고사례

□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실, 청년소식, 청년고용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집적한 사이트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도 검색이 가능함. ‘청년농업인’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사업명을 클릭하면 정책요약,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이동함. 청년상담실은 카카오톡 상담, 심층상담, 찾아가는 상담, 전화상담 등을 운영함 (자료: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표 5-2> 분야별 주요 특징 및 정책과제 세부 내용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제언	신규 여부		주체	
			신규	보완	중앙	지자체
가. 정착 지원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귀농·귀촌 증가추세이나 지원 인프라 부족 - 청년여성농업인 농촌 삶의 질 만족도 낮음. 노동부담, 부채부담, 성차별, 고립감 등. 탈농업 현상 발생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만남, 또래 청년여성농업인과의 만남 등 자리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플랫폼 운영 - 기반 사업: 실태 파악 및 DB 관리 -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 -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평가 및 개발 -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	○	○
나. 농촌 생활여건 개선 (주거·보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주거 마련 어려움 - 거주 안정성, 안전, 쾌적함, 편의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청년여성 안심주택 지원 - 청년여성 주거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무연고 비혼 청년여성 1인가구 우선 순위) - 안전과 편의성을 위하여 음면 소재지에 마련하고, 지역 내 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지자체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 정보 제공, 지역활동·일자리 등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 노동력 손실, 농가도우미 제도 도움 컷음 - 농촌 보육시설·아동돌봄시설 확대/서비스 수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아동돌봄시설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농촌지역 영유아 돌봄, 초등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농촌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되 시설·서비스 수준 제고 		○		○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제언	신규 여부		주체	
			신규	보완	중앙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업시 화장실 이용 어려워 질환 발생 - 산부인과 필요, 특별화장실 필요 - (비농업) 농촌 대중교통 불편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화장실 운영 확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확대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항목에 산부인과 항목 추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을 내기 위해 영농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빚 부담, 정서적 스트레스 - 수익 없는 상황에서 영농자금의 소모 - (부모기반 없음) 정착금/일자리 ·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탈농촌 · 청년창업농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선정 쉽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자립 및 영농설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예비 청년여성농업인 정보 관리 (지자체 귀농귀촌·청년농업인 담당: 신규/예비 청년농업인 성별 통계 구축)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별 여건을 고려한 신청하고 현실적인 영농설계 컨설팅 - 이주 초기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 정보 제공, 보호 울타리 등 안내자 매칭 · 지역 내 선배/또래 여성농업인 		○	○	○
다. 농업·농촌 취창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미등록, 영세 규모로 생산한 발작물의 판로를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 농산물 판매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작은 장터사업 활성화 - 영세농 청년여성농업인의 판로 지원, 선배 농업인과의 교류 기회로 활용 - 농협·지자체 등 소농 농산물 판매 지원 		○		○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제언	신규 여부		주체	
			신규	보완	중앙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분야 청년여성농업인 소모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겸업(농업농촌) 융복합산업 농업뿐만 아니라 세무, 디자인, 마케팅 등 스스로 해야 함. 청년여성으로서 부담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 창업자 지원 사업 운영 - 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비중이 높은 청년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성 - 세무, 디자인, 마케팅 등 융복합산업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공유 워크숍 - 선배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조언/지원 제공 -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관심·정책 계기 · (부모기반 있음) 부모님 농산물 온라인 판매, 자신의 재능, 노력으로 부모님의 농사 일을 도울 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생활, 여행경험, 농촌생활에 매력. 도시와 다른 삶, 자연, 지원정책 · (부모기반 없음) 건강, 먼거리, 생태적인 삶에 관심, 외국생활, 여행경험, 농촌생활에 매력. 도시와 다른 삶, 자연, 지원정책이 있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청년여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책 활성화 -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 경험·단기 체험을 축적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농업·농촌 분야 창의적인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기존 농촌 취업 사업에 청년여성 참여 현황 모니터링 - 지역 내 청년여성농업인, 농촌청년여성 등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라. 세대 간 교류·화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의 경우 부모 자녀 갈등, 청년여성농업인을 승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음 기혼 후계 청년여성농업인의 경우 비농업인 배우자의 농업 참여를 부모가 거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대 - 부모와 딸의 관계, 혼인 이후의 변화 등 청년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사례를 포함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	○	○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제언	신규 여부		주체	
			신규	보완	중앙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청년여성농업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공동경영협약 전문강사 양성(농촌 성평등 강사 보수교육을 통한 활용)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 실시 확대 - 농업인 대상 교육에 가족경영협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세대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 비호, 무연고, 청년여성, 여성가구원만 있는 기구 무시, 확대, 괴롭힘 - 청년남성들도 감수성 낮음. 성인지 교육 필요 - 성희롱·성폭력 빈번하게 발생(마을, 단체, 공무원, 교육 강사 등)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농업인 세대공감 지역사회 활동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과 농촌 주민, 선배 농업인이 함께 하는 교류·협업 활동 추진 - 청년여성농업인이 영농현장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개선활동, 농담·농촌 특성을 반영한 문화사업, 고령 여성 농업인의 지혜 전승 기록단 등 - 청년여성농업인과 농촌주민, 선배농업인이 한 팀으로 활동 수행 		○		○
마.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귀농귀촌 관련 공무원, 전문가, 멘토 등 성인지 교육 강화 - 성인지 관점에서 농업·농촌정책 추진역량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여와 		○	○	○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제언	신규 여부		주체	
			신규	보완	중앙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이해 - 청년여성농업인 유형과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 능력 제고 - 추진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청년농업인단체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실천 문화활동 실시 - 청년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그 외 주도적인 방식의 기획 활동 실시(세미나, 집담회, 토론회 등) - 도 단위 청년농업인단체 4H 공동사업으로 추진(기초단위까지 확산)				
		○ 농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농촌지역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발생 시 대처방법 매뉴얼 - 농촌의 가부장적 유교문화, 고령화 등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바. 정책·영농정보 제공 활성화	- 청년농업인 정책 정보 공유 필요. 자립 관련(주거, 정착금 등) 정책정보에 대해서 우선 실시 - 언제든지 영농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창구 필요	○ 온라인 청년농업인센터 운영	○		○	○

참고문헌

- 김기홍(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충남연구원
- 마상진·정은미·김경인(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기환(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민정(2020).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신승배·손태주(202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안희정·허목화·조연숙·최혜영·조은설(2019). 『강원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평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순미·위라겸·정인경(2020).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김정섭·신소희·구본경(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시 청년허브
- 안석·엄진영·박지연(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최용호·박지연(2019).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진천(2020). 강원도 청년농정책 전환과 제안. 『2020 신농정 거버넌스 정책연구과제(상반기) 최종보고서』. 강원연구원 신농정기획단.
- 임소영·김정섭·김남훈·하인혜(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선주(2020). 여성농업인 의제 발굴 및 확산_여성농업인 세대공감 프로젝트. 『2020 신농정 거버넌스 정책연구과제(상반기) 최종보고서』. 강원연구원 신농정기획단.
- 최정신. 2019. “여성농업인 연구 분야별 현안과제 진단 및 평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내부자료.
- 태희원(2018). 『충남 농촌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 『농업인력현황 2020』
- 농림축산식품부(2020).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7, 2018, 2019,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부록 1. 전국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청년농업인·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강원도	강릉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청년 농업인력 유입 촉진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	인당 6,000만원 이내(자부담20%)	3개소
강원도	고성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강원도	양구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정착금 지원	만 45세이하 독립경영 3년차 이내의 청년 농업인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100만원, [2년차]90만원, [3년차]80만원	
강원도	양구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생산기반시설, 종묘, 농자재 등 지원	청년 및 환농업인 (45세 이하)	개소당 2,000만원 한도(자부담 30%)	5개소
강원도	양양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생산유통, 제조기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농업법인, 만45세이하 청년농업인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성적별 상이 지원)	강원도 38명
강원도	영월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생산, 시설, 전입주태개보수, 임차비지원	창업10~3년차 청년농업인 (만 18세~만45세)	1인당 1,600만원 한도	2명
강원도	정선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강원도	철원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강원도	평창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이론, 사례, 토의, 현장교육 등 수요자 참여형 교육	귀농귀촌인(예비) 및 청년농업인(45세 미만)	별도 신청기간에 교육 신청	40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강원도	홍천군	청년농업인 안정영농 정착지원	농업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	39세이하 청년농업인	개소당 2,000만원 한도 (자부담 30%)	2개소
강원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	원특분야 창업 및 가공창업 지원	47세이하 청년농업인	개소당 3,000만원 한도(자부담 30%)	2개소
강원도	홍천군	청년친화형 드론방제사업단 운영	농업용 드론 지원	드론운행자격 보유, 청년농업인 4인 이상 단체	개소당 5,000만원 한도(자부담 30%)	
강원도	황성군	1인 미디어 창직·창업 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 행사기획운영 전문가 육성 *전액무료 *서류신청및면접을통한선발	* 황성군지역 거주자로서 창작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42세 미만 지원가능), *황성군민외황성지역내사업장을소유하거나,황성지역창업예정자는30%이내지원가능		
강원도	황성군	2021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최대40,000천원 범위내 (도비24%, 군비56%, 자부담20%)> 농축산물생산·유통기반·제조·가공(前)단계필요공동생산·보관 -유통시설·생산·유통시설및장비,기술개발,브랜드개발,콘텐츠제작,포장패키지제작등 -농축산물제조·가공·향토자원 활용제조·가공등시설및설비, 연구개발비,컨설팅등 -농축산물체험·전시·생산제품 소규모체험·전시시설,공동판매시설,홍보·마케팅등	o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16.1.10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o 사업년도1월1일기준실거주지시군주민등록 o지원제외 * '21부터 농업법인 지원금 제외 -본인농업경영과직접연관된 분야이외사업등록사업체경영자		
강원도	황성군			기업체 등에 상근직원으로 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근로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체험관광,6차산업:체험·휴양 마을연계관광프로그램및시설 관련콘텐츠개발·교육등S/W사 업 -농촌전업·영농창업초기주기 안정:주택소규모개보수및임차 료등(5,000천원이내)	-승계농중(조)부모소유도자· 시설등에대해투자계획중인 사업 -기타사업추지에맞지않는사 업등부적절하다고시정군수 기인정하는경우		
강원도	횡성군	2021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 지원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가족동반전입시정착지원금1 가구당월30만원추가지원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18세 이상 5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대상기업에취업하여3개월 이상정규직으로재직이확인 된자		30명(예산 범위내)
강원도	횡성군	2021년 횡성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차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지원	* 교육기간 : 21.08.30.(월) ~ 09.10.(금) 까지 (10일간) / [총 10회] 18:00~22:00 -전체프로그램국비및횡성군 지원으로전액무료 -창직, 창업전문가:1맞춤형 컨설팅을통한창업지원, 창업 유관기관연계지원및정보제공 -횡성군수및(사)스타트업미래 포럼명의의수로중점우수사례 시상	* 횡성군 지역거주자(필수사항) *창직,창업을희망하는(예비) 청년창업자(*만39세이하)		20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강원도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설비, 사업개발비, 임차료 등 창업 간접비 지원	공고일 현재 횡성군 거주 만18세~39세의 청년 중 '18~'19년 맞춤형청년창업 지원(1년차) 기선정된 사업자	- 창업 지원 : 최대 1,500만원 한도 -기타지원(교육및컨설팅등)	6명/점포
강원도	횡성군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일 경험 지원사업	도내 청년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터기반 학습과 현장 실무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인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020년3월~2020년5월 (3개월)	공고일 기준 강원도 거주 미취업청년, 만 39세 이하		16명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다용도 작업대 구입비 지원	관내 여성 농업인	60만원 (지원 80%,자부담 20%)	200대
강원도	횡성군	원예·특작 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기업승계 원예특작 맞춤형 사업 지원) -총사업비20%이내에서교육·컨설팅비등영량강화사업지원 -생산·유통,제조·기공,체험·관광,브랜드개발,마케팅등원예 특작기반구축에필요한사업계 획지원적수립및지원	관내 거주 원예특작 품목 영농 경력 1년 이상 청년농업인(만18세이상~39세 이하)		60,000천원(군비 70%, 자부담 30%)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강원도	횡성군	청년4H회원 기초 영농정착지원	신기술 접목 영농 기초시설, 농자재, 종자, 종묘 등 사업계획 현지조사를 통한 지원	만18세이상 40세미만, 청년 4-H회원	최대 2,000만원 한도	1명
강원도	횡성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영농창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물적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만18세이상 45세이하, 영농경력 5년 미만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	공모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지부담없음)	2명
강원도	횡성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주택개보수 임차 등 영농창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물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농업법인, 청년농업인(만18세이상 45세이하)	최우수:3,000만원 우수:2,000만원 장려:1,500만원	
강원도	횡성군	황성형 청년일자리(전임근로수당, 정착지원금)지원 사업 안내	청년일자리(전임근로수당, 정착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전임기준이전3년동안강원도주민등록등재사실이없는 만18세이상39세이하청년(※공고일기준나이) -전임기준6개월이내해당관내기업에취업하여3개월이상 정규직으로재직이확인된근로자	▶ 전임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지원, ▶가족동반전입시정착지원금1가구당월30만원"추가"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농업인 취업직불제 사업	청년 농업인 취업 직불제 사업	만 40세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병역필또는병역면제자, 신청하는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월 100만원 영농 정착지원금 1년간 지급 청년창업농성립사업연계및 우대지원	00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만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하는 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청년창업농농림사업연계및 지원유대 외무교육이수, 농업체해보험 및 자조금등경영안정시책가 입, 경영장부기록필수 영농정착지원금지급기간과 지급완료후지급기간동안영 농의무중사	00명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영실습인대농장 조성	경영실습인대농장(운실) 조성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개소당 300백만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지원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농업인 취업직불제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문제 및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자유롭게토론하고문제해결을 할수있도록운영비지원	청년농업인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꾸쳐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정부 기록 및 제출 등	
경상남도	고성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영농(영어) 60%이상, 가사 40% 미만 1일60,000원(지원:51,000원, 자부담:9,000원),90일한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시군별 1개 단체 육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10백만원/개소 -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로, 간담회 및 컨설팅경비, 회의비 등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정책자금 이차 차액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2% 중 최대 200만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으로 정책자금 대출농가		
경상남도	고성군	영농기초 기술교육지원	신규농업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등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등		
경상남도	고성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 1인 최대 월 1백만원 지원(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 지급) -시기:매년1.1~1.31.	- 연령, 주소: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고성군 거주 농업인 *2020년사업신청가능연령: 1980.1.1~2002.12.31. 출생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고성군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600만원	-영농경력: 독립경영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포함) -병역필또는병영면제자(여성포함)		
경상남도	고성군	청년농업인 취업직불제	1인당 월100만원(년간 1,200만원)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원금을 동협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9명
경상남도	양산시	청년4-H 과제교육 지원	미래농업 대응 과제교육, 영농 연구과제 수행 지원 등	청년4-H단체	개소당 450만원	1개소
경상남도	양산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컨설팅 희망 청년농업인 대상 컨설팅	청년농업인	개소당 60만원	3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2020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3~7개월 이내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월120만원(연수대상자80만 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1.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2. 전입5년이내내내귀농인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3~7개월 이내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월120만원(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3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의령군	2020년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농업(기공)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 저장기공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 축산기반 시설 확충 지원 **저재구입및중고농기계자금, 가축임식, 농지임차(구입)비 지원제외	3.농업경영체등록한지5년 이내의관내농업인 4.만40세미만청장년층(귀농 여부및지역과상관없이지원 가능)	* 월 20일(160시간) 이상 근무, 자기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개소당 5,000만원(지원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2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2021년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농업(기공)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 저장기공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 축산기반 시설 확충 지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세대주) 중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 농업경영체로서 귀농귀촌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개소당 5,000만원(지원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1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신도농장에서 3~7개월 교육훈련비 지원	1. 귀농인(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체) 2. 농업경영체등록5년이내인 관내농업인 3. 2020년청년창업농업농정 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 예정자에 한함) 4. 만40세미만청장년층	연수대상자(80만원/월), 신도농가(40만원/월) -월20일, 160시간이상현장 실습시지급	3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의령군	생각보다 가까운 의령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한달 간 의령군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귀농귀촌 체험기회 제공	의령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의령군에서신규농업인교육 수료자, 부부입주, 청년농업인(부부)세대 -65세이상, 타지역을먼거주 지등귀농자격미충족자는후 순위 -본인및배우자또는직계가족 이의령군에주소를둔자는제 외	시설사용료: 본인 부담금 5만원(전기세, 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1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농업기계 구입, 하우스, 저장기공시설 등 농업, 축산기반 및 시설확충지원	전입 5년이내인 자 중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 농업경영체로서 귀농귀촌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개소당 5,000만원(지원 50%, 자부담 50%)	2개소
경상남도	의령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지급 지원 (농협직불카드발급)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경상남도	의령군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농업법인 등에 인턴근무시 월 보수 지원	만 18세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최대600만원, 최대6개월)	
경상남도	진주시	청년창업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영농경력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예로사항 해결하는 작목별 그룹 컨설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0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진주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	당해년도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자는 제외하고 영농경력에 따른 차등지원(1년차 1년간 월1백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16명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독립영농년차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지급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독립영농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9명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농업인 취업직불제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독립영농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월100만원씩 12개월 지급	5명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비용, 소모성 물품 구입비 지원, 각종 행사·회의·교육·관련 프로그램 참가 및 개최 비용 등 지원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청년 농업인 취업직불제	1인당 연간 12백만원 지원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영농자금 및 일반 기계자금 활용 가능한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10명
경상남도	창원시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미취업 청년이 농업법인등에 근무시 월보수 일부지원(최소3~최대6개월)	만18세이상 45세미만 미취업청년,농업법인 등	월보수50%,1백만원한도,최 대6개월 지원	미정
경상남도	통영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독립경영1년 : 월100만원, 독립경영2년 : 월90만원, 독립경영3년 : 월80만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남도	하동군	청년창업농 활성화 지원	경종·축산 분야 영농시설 설치(구입) 및 개보수 등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자)	·농업창업 기본·심화 교육(의무교육) ·창업지원금지원:1인15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우선지원	20명
경상남도	하동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경종, 축산 분야 농지(토지)구입 및 시설 설치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자)	최대 3억원(대출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10명
경상남도	합천군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대상(만18세이상~만 45세미만 미취업자)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20명
경상북도	경주시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만 39세 이하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예비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개소당 1,000만원/인, 3년간	담당부서 문의
경상북도	경주시	청년농부 창농기반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제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	만 39세 이하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개소당 2억원(보조 80%, 자부담 20%(융자))	담당부서 문의
경상북도	경주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생신기반, 자금, 유통, 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만 39세 이하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개소당 1억원(보조 80%, 자부담 20%이상)	2개소 정도(7~8월 신청)
경상북도	경주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원	만 39세 이하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3년 이하	영농경력에 따라 정착지원금 차등 지급(1년차 : 월100만원, 2년차 : 월90만원, 3년차 : 월80만원)	담당부서 문의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북도	군위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및 청년농업인	미전입자 및 전입한지 5년이내	10회
경상북도	문경시	(2030)청년농업 CEO 농어촌 진흥기금	경종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개보수 농자재 구입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가당 50~200백만원 연 1.0%	문경시 500백만원
경상북도	상주시	(2030)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지원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의 영농기반시설 마련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자부담 2억원 / 보조 3억원	1개소
경상북도	상주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청년 취업시 월 200만원 지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인건비(연 2,400만원/인) 및 정착지원비(연 30만원/인) (최대3년)	연 1개소
경상북도	상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육성자금(용자), 교육 체계적 지원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희망자)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매년 2~30명
경상북도	상주시	초보청년농부 멘토링지원	농장 실습지원의 경비, 교육비 지원	만18 ~ 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교육훈련비(멘티) 월 100만원 / 기술전수비(멘토) 월 50만원	연 1개소
경상북도	성주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연수생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훈련수당 지원	2020년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중 현장실습교육을 희망하는 예비독립경영인 등	멘토 : 월40만 (5개월 지원), 멘티 : 월 80만 (5개월 지원)	1개소
경상북도	안동시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세대당 2억원	배정예산 이내
경상북도	영덕군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청년 (예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비 지원	만18세 ~ 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선도농가 월 50만원, 청년농업인 월 100만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북도	영양군	(2030)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농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 지원	도내에 거주중인 만 39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농기당 200백만원 한도 지원	2~3농가
경상북도	영양군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농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 지원	도내에 거주중인 만 39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농기당 2억원 한도 지원	2~3농가
경상북도	영천시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농가 경영비 및 일반기계자금 지원(바우처 방식 지급)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예비)농업인 또는 고교 졸업 후 독립경영 4년 이상인 자 중 40세 미만인 자	1인 당 1,000만원(3년간 지원)	2개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가 경영비 및 일반기계자금 지원(바우처 방식 지급)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1인 당 월 80~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15명
경상북도	영천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잠재력 있는 청년농업인 대상 생산·유통·가공 등 자립기반구축자금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개소 당 1억원(자부담 2,000만원 포함)	2개소
경상북도	예천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경북도외 청년의 우리 지역 창업 및 정착 지원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경북도의 청년	1인당 사업비 3천만원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차세대 리더 경영·마케팅 교육	농업경영, SNS활용, 세무회계, 선도농가 견학 등	관내 청년농업인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1식(20회)
경상북도	예천군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사업자금, 사업활동비 지급	만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농업인	1년간 1,000만원, 최대 3년(보조100%)	2농가
경상북도	예천군	한우 아카데미 교육	한우 사양, 번식, 개량 등 이론교육과 실습	관내 한우사육 청년농업인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1식(20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 및 창업시업화자금 3천만원/1인 지원 - 1:1전담 멘토 배정후 의성군 정착 및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p>의성군 내 정착 및 창업시업화를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p> <p>※신청일기준주민등록상거주지가경북외타지역인경우 예한함</p> <p>(단, 경북지역거주민의경우 경북외타지역팀원과팀구성시참여가능)</p>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 및 창업시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1명당 3천만원 지원 - 1:1전담 멘토 배정후 의성군 정착 및 경영·자문서비스제공 - 선발창업팀시업화 교육프로그램운영(18시간) 	<p>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팀</p> <p>-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74.11.19.~2001.11.18. 출생자</p> <p>-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경북지역외 대한민국 거주국민</p> <p>※ 단, 경북지역 거주민의 경우 경북 외 타 지역 팀원과 팀 구성 시 가능</p> <p>- 신청일 기준 신청사업분야 업종의 사업자등록 보유자 참여불가</p> <p>- 팀구성은 최소1명~2명 이내로 구성</p>	<p>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 협약기간 종료 4개월 이내('21.4.30)에 의성군 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p> <p>단, 정착활동비를 제외한 사업화 준비자금 지원은 의성군 내 주소지 이전 후 지원함</p>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초기 3년 생활안정자금 지급	만18~40세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	1년차 월 100만원/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지원	50명
경상북도	청도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지원	청년고용 농업법인에 대해 인건비 지원(월 2백만원 기준 90%, 보조/ 최대 2년간 지원)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30만원/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청년)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으로 영농경영체 미등록자	농업법인에 대해 인건비 지원 (월2백만원 기준 90%보조/최대2년간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2030) 2030리더창농자금지원	청년 농업인 창업비용지원	대학졸업 후 4년 이내 청년, 경북농민시관학교 교육이수자	10,000천원/1인	4명
경상북도	청송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원(최대 3년간 지원)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예비) 농업인(만19세 이하),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을 하는 농업인	1년차 매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미정
경상북도	칠곡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대상 영농교육, 코칭, 멘토링	귀농·귀촌자 및 예정자, 청년농업인		20농가
경상북도	칠곡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술 및 실습교육 멘토링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 한정)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농촌지역 영농경영체 등록 5년 이내	5개소
경상북도	칠곡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기경영비 및 가계자금 목적의 바우처 카드 발급	귀농인,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3년 이내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80~100만원/월)	미정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센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전라남도	고흥군	농가도우미지원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출산예정여성농업인	1일 5만원, 70일 한도	13명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농장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농업시설물 구입 자본 보조	18세이상~ 45세미만 청년(예비)농	영농경력없는 신규창업 예정자이거나 3년 이내인자	1명
전라남도	곡성군	청년창업농장 조성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개보수비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자(1순위)	개소당 2,500만원(도30%, 군70%)	1개소
전라남도	나주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기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개소당 5,000만원 한도 (자부담 20%)	2개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3~5회 현장컨설팅 및 코치지원	10개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농장 임대(1년간)	1개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특립경영 1년차~ 3년차 차등 지원	예산배정 한도 내
전라남도	보성군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농업시설물(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 청년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100시간수료	개소당 3,000만원 이내(자부담 30%)	5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남도	보성군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구입비 보조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총사업비 3,000만원 한도내 보조 70%, 자담30%	5농가
전라남도	순천시	2021년 우수 청년(귀농)농 소득생산기반 확충 지원	청년(귀농)농가가 필요한 기반시설(영농 기자재 등)을 지원	(귀농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청년농)만18세이상~만40세미만의 농업경영체등록청년농업인 (지원제외대상) 1. 최근5년 이내 소득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수혜자 2. 타산업분야에 전업직업자가진자(건강보험이직장가입자) 3. 부부, 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중복신청불가 4. 농업교육미이수자(청년농업인해당)	생산, 가공, 유통시설 조성비용의 50%지원(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	11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남도	순천시	2021년 청년(귀농)농 동지임대로 지원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농업핵심기반인 동지 임대로 일부를 지원	(귀농인)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경영영체에 등록된 귀농인 (청년농)만18세 이상 ~ 만 40세 농업경영체등록 청년농업인	1.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동지 임차시 1년 임차료의 70%지원(보상금 최대 250만원 한도 내) 2. 최대3년간지원 (매년재신청)	20개소
전라남도	신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개인당 월 10만원/최대 1년)을 현금으로 지원	-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 일 것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1979.1.3.~2001.1.2.출생)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 전세(대출금5천만원이상) 또는 월세주택거주자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존 종위소득 150%이하인 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농장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농업시설물 구입 자본 보조	만45세미만 청년(예비)농	개소당 2,500만원(보조 100%)	1개소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4-허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농산업 융복합 기반 구축	청년4-허회원	개소당 1,500만원(보조 70%)	1개소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근속장려금 지원	관내거주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	영암군내 중소기업에 취업	연차에 따른 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 내일로 사업	공공형 일자리 경험 제공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 신청	인건비 월100~200만원 등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마을사업장에 청년활동가 배치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신청	월 180~200만원 등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취업연계프로그램, 우수기업 탐방 등	관내 청년 실업자 및 기업	영암군 청년창업물 방문 상담	단계별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립지원금 지급	관내거주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청년	36개월동안 매월 10만원 적립	본인 저축액의 두배 금액과 이자 지급
전라남도	완도군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 실습교육	지역의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이 멘토-멘티를 이루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1년중 5개월 시행(연수생 월80만원 지급, 선도농가 월40만원 지급)	5개팀
전라남도	정성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인력 및 영농작업반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인 구직 희망자 (고령농, 여성, 소규모농가, 과 수채소농가)		
전라남도	정성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 지원	고령 영세·여성 농업인 등		200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남도	장성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품목이나 기술요인에 제한없음 (신기술,CT,기공,관광,벤처 창업등)	만18세~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여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개소당 50백만원(보조45백만원,자부담5백만원)	
전라남도	함평군	이동식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보조 80%	고령,여성농업인등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이 필요한 농업인		
전라남도	함평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초기 정착 지원금 지급	만18세~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1년차(월1,000천원), 2년차(월900천원), 3년차(월800천원) 보조 100%	10농가
전라북도	남원시	여성 귀농귀촌학교	성공 귀농귀촌인 강의, 체험, 농가 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여성도시민/초보 여성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자	2회
전라북도	무주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비용 지원	전북형 또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	연 500만원 이내 임차비용 중 50% 지원	2명
전라북도	무주군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농촌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전북형 또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	개소당 1,000만원(자부담 50%)	1개소
전라북도	순창군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청년귀농인에게 농작물 재배, 관리, 수확, 판매 등 실습기회 제공	만49세 이하 예비 귀농청년 또는 순창군 전입 5년이내인자	실습비 월 60만원~80만원 지급(6개월), 농자재 일부지원, 농지대여 서류심사및면접후합격자발표	20명 이내
전라북도	순창군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라캠프	청년 포럼, 시골생활 체험, 공동체인의 밤 행사	20~30대 도시 농촌 청년100명	신청서	1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북도	순창군	청년귀농귀촌기술교육	농장 홍보물 제작 교육, 청년창업 성공사례 기술교육	(예비)귀농귀촌청년	없음	7회
전라북도	순창군	청년농촌문화체험	농촌문화체험(모내기, 과채류수확체험 등)	(예비)귀농귀촌청년	없음	2회
전라북도	완주군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연 1회 지급 □ 신청기간: 당해년도연초(1 ~5월) □ 신청장소: 농업경영체등록 소재지읍/면사무소 <p>* 지침에 의거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p>	
전라북도	완주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 1.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 제외 2.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용도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이동식충진분무기, 충전운반차 * 다용도 농작업대 1~4종으로 확대예정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북도	완주군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 사업연도기준 만25세 이상 ~ 만 75세 - 기혼자의 경우 만20세이상 ~ 만24세인 자도 가능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 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관 가족(배우자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1인) : 15만원(1년) * 사용방법 : 생생복지카드 기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매년 12.31일까지 * 사 용 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펜션, 민박, 목욕탕, 영화관 등 	약 2,000명 (매년 상이)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 쉐어하우스	주거취약계층 주거공간 공유	완주군 거주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월평균 근로소득 기준이하)	1인당 월 5만원 사용료	30명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농촌 고령화 과소화에 따른 소통단절 및 세대갈등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상호간 유대감 형성 및 소통의 장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45세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완주군 내 청년농업인 상호간 네트워킹 비용 지원 * 팀당 200만원 지원 	3팀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선발 * 의무사항 : 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 - 직불카드(비우치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영농 2년차부터는 전년도 	17명(매년 상이)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동체 청년인턴 채용시 인건비 지원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 기간 등 (미이행 시 정지 및 환수)	농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차감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지급	12명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완주군 거주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월 187만원(보조 150, 자부담 37)	5~8개소
전라북도	익산시	귀농인 및 청년 현장실습 지원	현장 실습비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년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4개소
전라북도	임실군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청년 농업인 동아리 네트워크 비용 지원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개소당 20만원 한도	4개소
전라북도	정수군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40세미만 청년을 신규로 인턴 채용시 인건비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 40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1인당 월 보수액의 50%이내 지원	3명
전라북도	정수군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 사업	과소화된 농촌마을, 보조사업 진행중인 공동체 활동, 관리, 운영활성화를	관내 거주하는 청년 / 3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정수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주 예정인 자	2명
			추진할인력선정지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전라북도	장수군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사업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기획, 사업추진	관내 거주하는 청년 / 3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주 예정인 자	2명
전라북도	장수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 취업 지원	도에 거주하는 청년 4인 / 40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5일근무 월 200만원, 교통비 10만원	4명
전라북도	장수군	여성 귀농학교 운영	여성 귀농귀촌인 교육	여성 귀농귀촌인	도시민, 귀농귀촌인	1회
전라북도	장수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등	관내 거주하는 청년 8인 / 3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개소당 2,000만원 이내(기업자부담 10%)	8명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 귀농학교 운영	청년 귀농인 교육	청년 귀농귀촌인	도시민, 귀농귀촌인	1회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활동지원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지원	만 45세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개소당 200만원 한도	4개소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	ICT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39세 이하)	청년창업농 선정자 중 희망자	개소당 60만원	8개소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현장실습교육, 교육훈련비 지원, 선도농가 연수수당 지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중 예비독립경영인	개소당 600만원	4개소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로컬 소셜벤처 지원	창의혁신 무료교육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 3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7백만원 등	3-5개소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정착지원 사업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 정착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8인 / 3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20명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취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에 수습기회 제공	도에 거주하는 청년 7인 / 40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2년 근속시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	7명
전라북도	장수군	청년희망(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하우스 설치(ICT 스마트팜 구축)	청년, 귀농인	동당 22,000천원	2명
충청남도	당진시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관내 거주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10회(30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충청남도	당진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 및 국제농업연수	전문연수프로그램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도농업기술원 평생 네덜란드 영농기술 위탁교육(2명), 청년농업인 국외연수(10명)	12명
충청남도	당진시	청년농업인 창업 공모사업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 산업화	공모사업 선정자(청년농업인 40세 미만)	생산 및 가공기반, 6차 산업화 등	2개소
충청남도	서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독립경영 3년 미만 창업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100만원, [2년차]90만원, [3년차]80만원	2개소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구축 디딤돌교육	귀농희망 도시청년	개소당 100만원/월 (7개월)	2개소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구축 디딤돌 교육	귀농희망 도시청년	개소당 100만원/월 (7개월)	2개소
충청남도	서천군	청년 웨어하우스 운영	주택을 군에서 임대하여 청년에게 재임대	주거취약계층 청년(신규 진입 청년 포함)	월 임대료 14.7만원 지원 (연간 최대 176.4만원)	5개소
충청남도	서천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독립경영 3년 이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청년 창업농(40세 미만)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100만원, [2년차]90만원, [3년차]80만원	5개소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충청남도	이산시	[2020]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차지원	*청년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갖춘 후계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초기의 어려움현실을 감안하여농업인에게 융자금 대출이자를지원함으로써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전도모	-2018.2019년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융성사업 대상자 -2020.0101.~2020.12.31.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융성사업 융자금 이차 납부액의 50%지원	2020년
충청남도	이산시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청년창업농 (40세미만)	차등지원 1년차:100만원 2년차:90만원 3년차:80만원	11개소
충청남도	이산시	청년귀농인 친환경 생산자 프로그램	농촌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농업 필수 인력 부족 체계적으로전문화된청년농업인육성프로그램부재	1순위-청년귀농·귀촌인(민3 9세이하), 2순위-귀농·귀촌인	- 수도권 시험재배장 (4m×30m×3ea), 시설육묘 시험재배장 (330m2×1ea) 노지채소 스마트팜 시험 재 배장(330m2×1ea) - 75백만원	1식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기계안정자금 지원	관내 거주하는 만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월100만원~80만원 차등지원	17명
충청남도	청양군	청년농업인 영농디딤돌지원	청년농업인의 소득기반구축	독립경영 5년이하 소규모 청년농업인	개소당 2,000만원 한도	5개소
충청남도	충청남도	영농준비 청년창업 인성 지원사업	생활인성 자금지원	만18~40세 이하 청년농업인	연 960만원	30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 교육,컨설팅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예정)3년이하 만18~39세 청년농업인	영농경력 차등 지급 -1년차월100만원 -2년차월90만원 -3년차월80만원	114명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원	청년창업공간 조성 비용 지원	만 19세~만 4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단양군에거주(예정)인자로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조건	개소당 1,800만원 한도	5개소
충청북도	단양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및 실습교육	신규 농업인 (귀농, 귀촌, 청년농업인)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10회(48시간)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정착장려금	신혼부부에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부부	둘 중 한사람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50부부
충청북도	보은군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개소당 1,000만원 이내(지부담 5%)	
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농인 영농지원 사업	청년귀농인 영농지원(호미, 곡갱이, 장화 등 영농장비 구입지원)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청년귀농인	농가당 보조50만원 한도(보조50%)	57가구
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업기계(운반기, 관리기, 건조기, 소형저온저장고), 과수재배시설(간이비거름, 관수시설, 덕시설 등) 지원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청년귀농인	농가당 보조 500만원 한도(보조50%)	57가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 행복결혼 공제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 지원	만18세~40세 미만/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		
충청북도	제천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독립농경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180만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조건	사업량
충청북도	충주시	귀농청년농업인 소규모창업지원	신규농업인 창업아이템발굴 및 소규모 창업자금	귀농청년중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생 또는 귀농영농정착교육 이수자	개소당 1,000만원	5개소
충청북도	충주시	귀농청년농업인 소자본 창업지원	신규농업인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등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금	귀농영농정착교육 이수자중 귀농청년창업농	개소당 1,000만원	5개소

주: 귀농귀촌지원사업 중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 '여성'인 사업 발체 작성

자료: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ww.returnfarm.com:444/cmm/returnFarm/locgov/locgovMain.do?submitFunction=areaSportPolicyListAjax>

부록 2.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심층면접조사 개요 및 질문지

1. 심층면접 개요

- 조사 목적: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 경험(정착 저해요인)과 정책 욕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
- 조사 대상: 만19세~39세까지의 청년여성농업인

<표 1> 청년여성농업인 섭외시 고려사항(영농 유형, 주 작목, 승계농 여부)

1. 영농유형	2. 주 작목 등	3. 승계농 여부	※ 정착기간
<input type="checkbox"/> 농업 전업 <input type="checkbox"/> 겸업(농업·농촌 관련 산업) <input type="checkbox"/> 겸업(타 산업) <input type="checkbox"/> 취업(농업·농촌 관련 영역) <input type="checkbox"/> 탈농업	<input type="checkbox"/> 논벼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채소·밭작물 <input type="checkbox"/> 시설채소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팜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가공·체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승계농 <input type="checkbox"/> 신규농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초과

※ 섭외 과정에서 지역별, 연령별(정착기간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조정함

- 조사 내용:
 - 청년여성농업인 일반적인 특성
 - 농업·농촌 정착 경험(정착단계별 서술)
 - 정책 욕구(정착단계별 필요한 정책, 농업·농촌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생활환경)
- 조사 기간: 6월 21일~7월 9일(예정)
- 조사 방법: 5인 내외 집단 간담회 형태로 진행(핵심집단 인터뷰)
- 심층면접 참여자 수당: 10만원. (3시간 정도 소요).

2. 심층면접 질문지

I 유형

1. 영농유형	2. 주 작목	3. 승계농 여부	※ 정착기간
<input type="checkbox"/> 농업 전업 <input type="checkbox"/> 겸업(농업·농촌 관련 산업) <input type="checkbox"/> 겸업(타 산업) <input type="checkbox"/> 취업(농업·농촌 관련 영역) <input type="checkbox"/> 탈농업	<input type="checkbox"/> 논벼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채소·밭작물 <input type="checkbox"/> 시설채소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팜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가공·체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승계농 <input type="checkbox"/> 신규농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초과

II 일반 특성

구 분	항 목	답 변	비 고
사회문화 적 특성	거주지	()도 ()시/군 ()읍/면	
	연령대	만 ()세	
	농촌살이 기간	약 ()년	
	영농 기간	약 ()년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비혼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부모세대와 거주	① 시부모와 거주 ② 친정부모와 거주 ③ 단독거주	
	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농업계 여부	① 농업계 고등학교 ② 농업계 대학교 ③ 해당없음	
	귀농 형태	① 귀향(□남편, □본인) ② 연고지(□남편, □본인) ③ 무연고 ④ 해당없음(현재 사는 곳이 고향)	

구 분	항 목	답 변	비 고
경제적 요인	경영 형태	① 부모기반 승계 받음 ② 부모 농사를 같이 지음(가족종사자) ③ 배우자와 공동경영(남편 주도/본인 주도) ④ 단독 경영	
	농업규모	대농, 중농, 소농	
	농지·시설·농기계 소유	① 농지 () ② 시설 () ③ 농기계 ()	
	스마트 영농 여부	① 예 () ② 해당없음	
	지원정책 수혜 여부	① 정착금 () ② 농지 () ③ 시설 () ④ 주택 () ⑤ 기타 보조금 ()	
	부채 여부	① 있음 () ② 없음	
사회적 요인	활동 범위	① 마을 ② 읍면 단위 ③ 시·군 ④ 도 ⑤ 도시 지역	
	단체 활동	① 청년 ② 여성농업인 ③ 취미 ④ 영농	
	문화 활동	① 있음 () ② 없음	
	정보화 활용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농업·농촌 관련 활동에 활용 ()	

III 농업·농촌 정착 경험

■ 본인이 생각하는 정착 단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항 목	답 변	비 고
본인의 정착단계	농촌살이 기간	약 ()년	
	영농 기간	약 ()년	
	정착 단계	① 탐색기: 농촌·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는 시기 ② 준비·계획기: 농촌 살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③ 시작·실행기(3년 이내): 농촌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농업을 시작하는 초보기 ④ 지속·발전기(4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지속하며 발전하는 시기 ⑤ 탈농업: 농촌 살이와 농업 종사를 계획, 실행, 지속하다가 탈농촌·탈농업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도시로 이주 탈농업 <input type="checkbox"/> 농촌에 살면서 탈농업)	

■ 정착 단계 시간 순으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예 시
관심· 탐색기	1. 귀하께서 농촌살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세미나, 텃밭, 주말농장, 농촌체험활동, 농수산계 학교, 고향, 지인
	2. 귀하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세미나, 텃밭, 주말농장, 농촌체험활동, 농수산계 학교, 고향, 지인
	3. 귀하는 청년여성으로써 농촌살이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거나 망설여지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주거지, 안전, 편견, 경제 활동 문화여가생활
	4. 귀하는 탐색기에 농촌살이와 농업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시거나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법과 기관, 사람, 내용 등)	정보 검색 사이트, 교육 기관, 사람 등
	5. 귀하께서 탐색기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보·교육, 좀 더 필요했지만 접할 수 없었던 정보·교육 등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6. 탐색기에 접했던 정보·교육들이 실제 농촌에 정착하는데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기관연계, 인간관계 등

구 분	질 문	예 시
준비· 계획기	7. 귀하께서 농촌살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겠다고 결심한 계기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8. 귀하의 농촌살이 준비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어려웠던 점, 해결한 방법들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지역, 주거지, 마을, 지인, 단체.커뮤니티, 교육문화 복지 등 생활환경, 정착금 지원정책 등
	9. 귀하가 농업을 직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겠다고 결정한 시기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10. 귀하의 농업 종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어려웠던 점, 해결한 방법들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작목 선택, 농지 임대, 시설 보조금, 자금 지원, 영농교육, 멘토멘티, 농업인 단체.커뮤니티(4H, 여성농업인단체, 작목반 등)
시작· 실행기	11. 귀하께서는 농촌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정착 초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지역, 주거지, 마을, 지인, 단체.커뮤니티, 교육문화 복지 등 생활환경, 정착금 지원정책 등
	12. 귀하께서 정착 초기에 지원받은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세요. 도움 정도나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정착금, 주택 마련 등
	13. 귀하께서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농업 시작 초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작목 선택, 농지 임대, 시설 보조금, 자금 지원, 영농교육, 멘토멘티, 농업 관련 단체.커뮤니티(4H, 여성농업인단체, 작목반 등)
	14. 귀하께서 농업 시작 초기에 지원받은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세요. 도움 정도나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15. 농업 시작 초기에 가장 필요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예 시
지속. 발전기	16. 귀하께서 청년여성으로서 농촌에 정착하게 된 여건들이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방법들, 여전히 힘든 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거지, 마을, 지인, 단체.커뮤니티, 교육문화 복지 등 생활환경, 정착금 지원정책 등
	17. 귀하께서 청년여성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게 된 여건들이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방법들, 여전히 힘든 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목 선택, 농지 임대, 시설 보조금, 자금 지원, 영농교육, 멘토멘티, 농업 관련 단체.커뮤니티(4H, 여성농업인단체, 작목반 등)
	18. 귀하는 농촌.농업 분야에서 어떠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순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탈. 탈농업	20. 귀하의 탈농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농촌거주 탈농업, 도시거주 탈농업)	
	21. 귀하께서 탈농업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탈농업 계기와 이유 등	
	22. 귀하는 농촌살이를 다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여건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살이와 농업을 함께 말씀해주세요)	
성평등	23.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24. 여성을 농업의 주체로 인식하십니까?	

■ 청년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예 시
관심· 탐색기	1. 탐색기에 있는 청년여성을 위하여 어떤 정보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실제 농업인 육성 목적이 아니라, 청년여성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실시 된다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준비· 계획기	3. 농촌살이와 농업을 직업으로 본격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여성들을 위하여 개선되거나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여성들을 위하여 별도의 ‘청년여성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실행기	5. 농업 시작 초기에 가장 필요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6. 토지가 없이 농촌살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에게 일자리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속· 발전기	7. 청년여성인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 시설, 자금, 기술, 커뮤니티 등
농촌 생활 여건	8. 농촌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이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이나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주거, 보육, 문화, 복지 등 생활환경